

2026.08.31

ISSUE NO 73

KOTRA HANOI

편집 및 제작: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 센터

PHONE
+84-24-3946-051

EMAIL:
hanjisoo@kotra.or.kr

VIETNAM BUSINESS NEWS LETTER 9월





CONTENTS

01 글로벌 통상 및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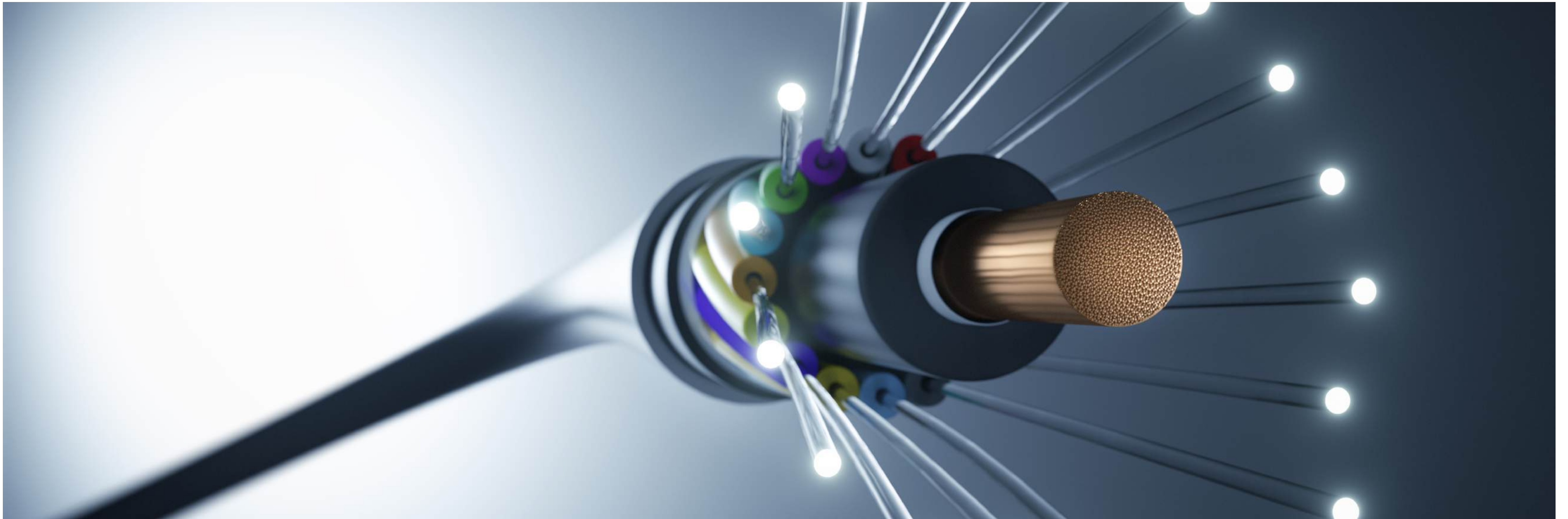
해외시장뉴스 · 프로젝트 동향	3
미국 통상정책 주요 동향 관련 해외시장뉴스	22
이미언 주베트남 신임 대사, 코트라 동남아대양주 지역 본부 방문	23

02 기업 탐방 및 비즈니스 실무 가이드

[기업탐방] GCOO VIETNAM — 김태호 대표	24
[법률] 베트남 신규 규정 검토 및 시사점	30
[회계]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32
[통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이중용도물품 상세목록 발표	35

03 유망 투자 정보 및 경제 지표

[이달의 유망성 투자 정보] 닌빈성	39
[보고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	48
[보고서] 2025 북한 대외무역 동향	48
[전시회] 제2회 하노이 인터내셔널 카페 전시회	49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50



베트남 광섬유 케이블 시장동향

2025년 수입액 80.3% 증가, 디지털 인프라 확충으로 수요 확대
고성능·특수 광섬유 케이블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 높아

시장동향

베트남 광섬유 케이블 시장은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성장률은 2025년 7.31%다. 2027년까지 8.84%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후 2029년에는 6.87%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투자 집중 이후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드는 흐름을 반영한다. 베트남산 싱글모드 통신용 케이블은 미국, 멕시코, 일본,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반면 멀티모드 케이블과 일부 고성능 케이블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 향후 성장 견인 품목은 통신 접속망·백본망용 케이블, 데이터센터용 광케이블, 해저 및 국제 육상 광케이블 세 가지다. 베트남 정부는 Decision No.1132/QD-TTg를 통해 2030년까지 광섬유 브로드밴드 이용자 100%가 1Gbps 이상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5G 커버리지는 인구 대비 99%를 목표로 한다. 데이터센터 부문에서는 VNPT, Viettel, CMC, FPT 등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Decision No.1132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와 AI 대응 데이터센터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해저 및 국제 육상 광케이블 부문은 Decision No.977/QD-BTTTT의 지원을 받는다. 이 결정문은 2030년까지 국제 해저케이블 최소 10개 신규 구축과 15개 시스템 확보를 목표로 한다. 해저케이블 용량은 최소 350Tbps를 목표로 한다.

수입동향

베트남의 광섬유 케이블(HS코드 8544.70) 수입액은 2025년 1억6618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3% 증가했다. 2023년 4914만 달러에서 2024년 9217만 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베트남 광섬유케이블(HS코드 8544.70) 수입동향
(단위: US\$천, %)

순위	구분	수입액 ('25년)	점유율 ('25년)	전년대비 증감율
1	중국	103,628	62.4	64.4
2	미국	18,226	11.0	100.6
3	일본	16,997	10.2	83.2
4	한국	2,668	1.6	149.5

[자료: GTA, 2026.7.29.]

경쟁 동향

베트남 광섬유 케이블 시장의 수요는 Viettel, VNPT, MobiFone, FPT Telecom 등 주요 통신사업자의 투자계획에 좌우된다. 이들 기업은 중앙집중식 입찰과 자체 공급업체 승인체계를 운영한다. Viettel은 2025년 베트남 최초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Tan Phu Trung Hyperscale Data Center를 구축했다. 설계용량은 최대 140MW다. VNPT는 2025년 8월 VSTN 국제 육상 광케이블을 상용화했다. 총연장은 3900km다.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연결한다. FPT Telecom은 2025년 8월 FPT Fornix HCM02 데이터센터를 개소했다. 랙 3600개 규모다. 공급 측면에서는 SACOM, POSTEF, VINA-OFC 등 베트남 현지 제조업체가 범용 제품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POSTEF는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광섬유 자체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기업 중에는 LS Cable & System이 동나이성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현지 사업은 전력 케이블 중심이다.

유통구조

현지에서 생산되는 FTTH 및 백본망용 케이블은 주요 통신사업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거나 경쟁입찰로 조달한다. 현지 제조업체는 유통업체, EPC 계약업체, 시스템 통합업체를 통해서도 제품을 공급한다. 멀티모드 및 고성능 케이블 등 특수 제품은 주로 공인 수입·유통업체를 통해 반입된다.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서는 EPC 계약업체가 설비 일부로 조달하거나 운영사가 직접 구매한다. 해외 공급기업은 통신사업자의 공급업체 등록요건과 EPC 계약업체 및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기술규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율 및 인증

베트남은 광섬유 케이블(HS코드 8544.70)에 5%의 일반 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산 제품은 VKFTA, AKFTA, RCEP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0%의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제품 광섬유 케이블은 Circular No.36/2026/TT-BKHCN에 따른 중위험·고위험 제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의 전문검사나 품질관리 인증 없이 일반 통관절차로 수입할 수 있다. 통관 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이 필요하다. 중고 광섬유 케이블은 Circular No.11/2018/TT-BTTTT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이다. 수입제품은 Decree No.37/2026/ND-CP에 따른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어 표시가 없는 경우 보충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시사점

베트남은 현지 생산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고성능·특수 광섬유 케이블 분야에서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멀티모드 케이블을 비롯한 고사양 제품의 수입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은 중국산과 가격 경쟁이 치열한 범용 제품보다 고부가가치 제품과 기술지원, 프로젝트별 맞춤 솔루션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통신사업자, EPC 계약업체, 시스템 통합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자격요건을 갖춘 현지 유통업체와 대리점을 통한 입찰 기반 조달시장 참여도 고려할 수 있다. 공급 이후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등 현지 사후지원 체계 마련이 중장기적인 시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타이어 시장동향

자동차·전기차 보급 확대로 고성능 타이어 수요 증가
높은 관세 장벽 속 OEM 협력과 생산 현지화가 관건

시장동향

모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베트남 타이어 시장 규모는 2025년 32억6000만 달러다. 2030년에는 42억100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5~2030년 연평균 성장률은 5.21%다. 승용차용 타이어는 2024년 기준 전체 시장의 55.67%를 차지했다. 이를 적용하면 2025년 승용차용 타이어 시장은 약 18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량은 2026년 약 70만 대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할 전망이다. 베트남지원산업협회는 향후 수년 내 연간 판매량이 100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도 주요 변화 요인이다. 2026년 상반기 VinFast의 전기차 판매량은 11만5916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판매량 32만8818대의 35% 이상에 해당한다. 전기차는 차량 중량이 무겁고 초기 토크가 높아 하중 지지력과 내마모성, 접지력이 중요하다. 주행 소음이 적어 저소음 성능도 주요 고려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수입 동향

베트남의 승용차용 타이어(HS코드 4011.10) 수입액은 2025년 1억3818만 달러이고 전년 대비 17.6% 감소했다. 2023년 1억4752만 달러에서 2024년 1억6778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2025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베트남 승용차용 타이어(HS코드 4011.10) 수입동향
(단위: US\$천, %)

순위	구분	수입액 ('25년)	점유율 ('25년)	전년대비 증감율
1	태국	74,980	54.3	-15.9
2	중국	21,255	15.4	-5.8
3	일본	14,427	10.4	-13.2
4	인도네시아	5,588	4.0	-39.9
5	한국	5,066	3.7	-15.0

[자료: GTA, 2026.7.24.]

경쟁동향

베트남 승용차용 타이어 시장은 현지 생산기지를 보유한 외국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Bridgestone은 하이퐁에서 연간 약 1800만 개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2017년 기준). Sailun은 떠이닌에서 연간 약 1600만 세트를 생산한다(2024년 기준). 생산량의 약 95%를 수출하며 VinFast 대부분 차종에 공급한다. Kumho Tire는 호치민에서 연간 약 1200만 개를 생산한다(2025년 기준). 북미가 최대 수출시장이다.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는 Casumina와 DRC가 대표적이다. Casumina는 호치민에서 연간 약 120만 개를 생산한다(2020년 기준). DRC는 다낭에서 연간 약 100만 개를 생산한다(2025년 기준).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수 소비자가 품질과 성능보다 가격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보급형 및 중저가 브랜드가 판매량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브랜드와 규격에 따라 약 35.6달러에서 233.1달러까지 분포한다.

유통구조

베트남 승용차용 타이어 시장은 신차용(OEM)과 교체용 시장으로 구분된다. 신차용 타이어는 제조업체가 완성차 조립기업에 직접 공급하며 출고 단계에서 장착된다. 차량 판매 이후에는 공인 딜러 및 서비스센터를 통해 OEM 규격에 맞는 교체용 타이어가 공급된다. 현지 생산 교체용 제품은 제조사의 직영 영업점이나 공인 대리점을 통해 유통된다. 수입산 제품은 현지 수입업체나 브랜드별 공인 대리점을 거쳐 타이어 전문점, 정비소, 딜러 등을 통해 판매된다.

관세율 및 인증

베트남은 승용차용 타이어에 25%의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한다. 아세안 회원국산과 일본산 타이어는 ATIGA와 VJEPA에 따라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중국산은 ACFTA에 따라 5%, EU산은 EVFTA에 따라 3.1%를 적용받는다. 한국산의 협정세율은 AKFTA 32%, VKFTA와 RCEP 각각 25%다. 실제로는 25%의 일반특혜관세 또는 협정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수입 타이어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국가기술규정 QCVN 34:2024/BGTVT를 준수해야 한다. 시속 60km 미만 또는 300km를 초과하는 타이어와 모터스포츠 경주용 타이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 타이어의 수입은 금지돼 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Decree No.05/2025/ND-CP 및 Decree No.110/2026/ND-CP에 따라 2024년부터 최소 5%의 의무재활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시사점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차 육성정책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기차는 중량과 초기 토크가 높고 소음이 적어 고하중·고내구성·저소음 성능을 갖춘 전용 타이어가 요구된다. 한국 타이어 기업은 이러한 기술적 요구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완성차 제조업체와의 조기 협력도 중요하다. 신차 개발단계부터 기술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안하면 OEM 공급계약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한국산 타이어에는 2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아세안산과 일본산은 무관세 혜택을 받아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생산 확대나 아세안 역내 생산기지 활용, 현지 공급망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농업용 트랙터 시장동향

2031년 8억 달러 전망... 트랙터가 농기계 시장의 55% 차지

18~37kW는 태국·일본, 전체 트랙터 수입은 중국이 주도

시장동향

베트남 농기계 시장은 정부의 기계화 정책과 노동력 감소, 금융여건 개선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5억6500만 달러다. 2026년에는 5억9975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후 연평균 6.1~6.2% 성장해 2031년에는 약 8억8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트랙터는 시장 성장을 이끄는 핵심 품목이다. 2026년 바퀴형 농업용 트랙터 시장 규모는 약 3억3096만 달러로 전체 농기계 시장의 약 5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시장은 2031년까지 연평균 6.42% 성장해 약 4억5178만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베트남 농촌에서는 청년층 이동과 고령화로 농업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출력 트랙터와 콤바인 등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다. GPS 유도 트랙터와 정밀농업 기술 도입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메콩델타의 고품질·저배출 쌀 전문재배지 100만ha 조성사업을 통해 현대식 농기계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2025년 출범한 농업환경부와 지방정부는 저리대출과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지 생산 농기계는 국내 수요의 약 32%만을 충족하고 있다. 콤바인은 약 90%가 외국산이다. 트랙터도 70% 이상이 수입제품으로 추정된다. 신품 농기계의 높은 가격으로 일본·한국산 중고 50~100마력 트랙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수입 동향

베트남의 18kW 초과 37kW 이하 트랙터(HS코드 8701.92) 수입액은 2025년 2143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2% 감소했다.

베트남 농업용 트랙터(HS코드 8701.92, 18kW 초과 37kW 이하) 수입동향
(단위: US\$천, %)

순위	구분	수입액 ('25년)	점유율 ('25년)	전년대비 증감율
1	태국	16,419	76.6	-25.1
2	일본	4,152	19.4	-27.1
3	인도	470	2.2	44.4
4	중국	380	1.8	70.2
5	한국	3	0.01	-

[자료: GTA, 2026.8.4]

경쟁동향

베트남 대형 트랙터 시장은 일본계 브랜드와 한국 기술 기반 현지 생산제품이 주도하고 있다. Kubota는 4륜 트랙터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로 1위다. 2륜 보행형 트랙터 시장에서는 VEAM이 약 20%의 점유율로 선두다. 베트남 THACO는 2017년 LS엠트론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LS엠트론의 베트남 독점 생산·유통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THACO는 꽝남성 쭈라이 공장에서 18~120마력급 트랙터를 생산하고 있다. 역내가치함유비율 50% 달성을 목표로 한다. 2025년에는 빈즈엉성 신규 기계제조단지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일본 Yanmar는 논농사용 콤바인 시장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12월에는 인도 International Tractors Limited와 협력해 Solis 트랙터 유통을 시작했다. Deere&Company는 TTC Bien Hoa를 통해 정밀농업 솔루션으로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통구조

베트남 대형 농기계는 전국 단위의 OEM 브랜드 딜러·대리점망을 통해 판매된다. Kubota, THACO, Yanmar 등은 메콩델타와 홍강델타, 중부고원 등에 공인 딜러망을 운영한다. 금융·할부 프로그램과 시범농장도 함께 제공한다. 중고시장에서는 지역 딜러를 통해 일본·한국산 50~100마력급 트랙터가 소규모 농가에 공급된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구매·임차 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지방 농업당국과 협동조합은 보조금 지원 농기계의 유통 채널로도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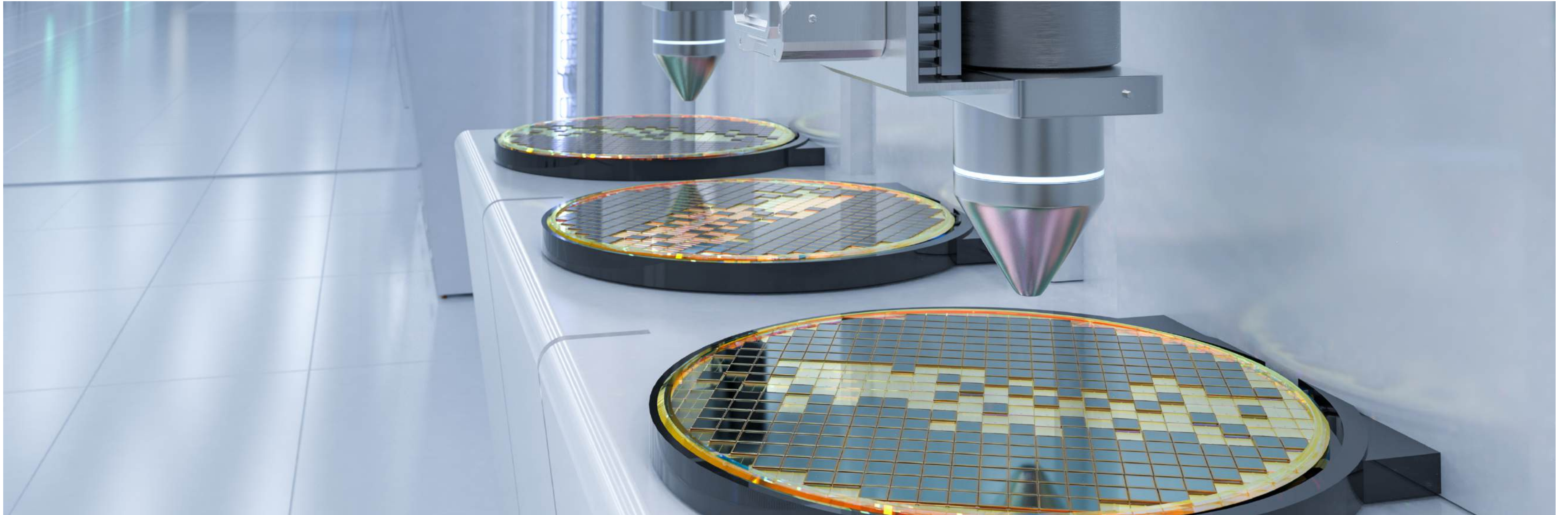
관세율 및 인증

베트남은 엔진출력 18kW 초과 농업용 트랙터와 수확·탈곡기계에 5%의 MFN 관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산 제품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VKFTA에 따라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RCEP 세율은 3.3%다. 농업용 트랙터는 2024년 도로교통질서안전법에 따라 전문사용차량으로 분류된다. 베트남등록원이 관장하는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검사 대상이다. 중고 트랙터는 제조 후 10년 이내인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연식 기준을 초과하면 통관이 거부되거나 재수출될 수 있다. 농업 전용 트랙터는 최종용도가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용도가 불명확하면 일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사점

THACO와 LS엠트론의 협력모델은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 독점 유통을 결합한 대표적인 진출 사례다. 다른 한국 농기계 기업도 이를 참고해 역내가치 비중을 높이고 RCEP·AK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중국은 트랙터·농기계 수입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로 저가·범용 제품에 집중돼 있다. 일본·인도·한국 기술 기반 브랜드는 중·고마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정밀농업, GPS 유도, 텔레매틱스 등 기술 차별화와 현지 애프터서비스망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기계화 정책과 지방정부의 저리 대출 제도도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베트남 반도체 제조용 장비 시장동향

2030년 반도체 시장 465억 달러 전망... 후공정 장비 수요 확대

2025년 수입액 76.4% 증가... 중국 29.3%·한국 20.0% 차지

시장동향

베트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시장은 반도체 산업 성장과 함께 확대되고 있다. 스탯ISTA에 따르면 베트남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6년 291억3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2026~2030년 연평균 성장률은 12.43%다. 2030년에는 465억4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인텔, 앰코 테크놀로지, 삼성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베트남 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과 인력 양성 노력도 성장에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정밀한 품질 관리와 결함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 장비 시장은 2025년 10.1% 성장했다. 베트남은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조립·패키징·테스트 등 후공정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장비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주재국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2025년 베트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HS코드 9031.80) 전체 수입액은 20억4649만 달러다. 전년 대비 약 76.4%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29.3%), 한국(20.0%), 일본(5.7%) 순이다. 중국산 수입액은 약 6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한국의 수입액은 약 4억88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한국은 2023년 제1위 공급국에서 2025년 제2위로 내려섰다. 10대 수입국 중 대만이 66.5%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필리핀은 15.5% 감소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중국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국산 장비 비중은 2024년 25%에서 2025년 말 35%까지 확대됐다. 이는 가격에 민감한 베트남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 상승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동향

베트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시장은 대부분 수입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2026년 5월 삼성전자는 베트남 내 첫 반도체 테스트 공장 설립을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OSAT 분야 FDI가 지속 증가하면서 장비 제조업체의 현지 생산시설 설립도 나타나고 있다. 뮤텍 테크놀로지 베트남은 약 400만 달러를 투자해 팜닌성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28년 1분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어드밴테스트는 호치민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BESI는 사이공하이테크파크에서 정밀 금형과 부품을 생산하고 향후 장비 생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의 한미반도체도 베트남에 현지 거점을 두고 고객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유통구조

베트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전문성에 따라 직접 거래와 현지 유통망으로 구분된다. 후공정 전용 검사·테스트 장비는 수요처가 소수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해 직접 영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국내 업체 미래산업은 2024년 베트남 북부 박닌에 법인을 설립했다. 범용 계측·검사기기는 Lidinco, THB Vietnam, Allied Chance 등 현지 유통업체가 해외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으로 공급한다. 다만 반도체 공정 전용 고가 장비는 제조사와 수요기업 간 직접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관세율 및 규제

2026년 기준 반도체 제조용 장비(HS코드 9031.80.10 및 9031.80.90)의 일반 수입세율은 5%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 AKFTA 또는 VKFTA를 활용하면 관세율 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수입 규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중고 기계·장비는 시행규칙 Circular No.30/2025/TT-BKHCN에 따른 수입 요건이 적용된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이 규칙에 따라 반도체 프로젝트 및 교육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중고 장비는 사용 연한 최대 20년인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은 사용 연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해당 장비는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 이전이 금지된 기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시사점

베트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시장은 반도체 산업 성장과 생산기지 이전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기업의 FDI 증가와 정부의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조립·패키징·테스트 공정용 장비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구조는 중국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한국산 장비는 한국계 반도체 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내부 기술 기준을 충족하고 운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 장비 공급업체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전기이륜차 시장동향

베트남 정부의 저배출구역(LEZ) 정책 시행에 따른 전기이륜차 시장 성장 가속화
현지 생산체제 강화와 모터·배터리·제어장치 등 핵심 부품 중심의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시장동향

베트남 이륜차 시장은 혼다와 야마하 등 일본계 기업이 주도해왔다. 혼다는 2025년 약 224만 5천 대를 판매했다. 최근 전기이륜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2025년 베트남 전체 이륜차 판매량은 약 340만 대다. 이 중 전기이륜차는 약 80만 대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빈패스트는 2025년 전기이륜차 약 40만 6천 대를 판매했다. 전년 대비 판매량이 증가했다. 야마하를 제치고 이륜차 시장 2위에 올라섰다. 2026년 상반기 판매량은 약 43만 5천 대다. 전체 시장 점유율은 약 24%로 상승했다. 혼다는 약 62%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혼다는 태국에서 생산하던 전기이륜차 UC3를 2026년 9월부터 베트남 푸토성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베트남 수입동향 및 對한국 수입규모

2025년 베트남의 전기이륜차(HS Code 8711.60) 수입액은 약 233만 4,008달러다.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국가별 점유율은 캄보디아 27.2%, 일본 25.7%, 중국 24.4%, 태국 17.0% 순이다. 일본과 중국은 전년 대비 각각 41.8%, 27.4% 감소했다. 한국의 對베트남 전기이륜차 수출액은 2025년 7,245달러다. 전년 대비 82.4% 감소했다. 베트남 전체 전기이륜차 수입시장 내 한국산 비중은 0.1% 미만이다.

베트남 현지시장 경쟁동향

현지 브랜드인 빈패스트는 Evo 200, Feliz S, Klara S2, Theon S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26년 판매 목표는 150만 대다. 보급형 모델 Kyo와 Kinet을 신규 출시했다. 구매가격의 6%를 지원하는 등 자체 인센티브도 운영하고 있다. 닷바이크는 Quantum S-Series를 중심으로 고급형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향후 2년간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10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브랜드 중 혼다는 ICON e:와 CUV e:를 보유하고 있다. 2026년 UC3를 공개했다. 야마하는 NEO'S를 중심으로 전동화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계 야디는 2026년 3월 박닌성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생산공장을 가동했다.

유통구조

혼다와 야마하는 공식 판매 및 정비 대리점을 통해 유통한다. 빈패스트는 공식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 전국 300개 이상의 서비스 거점을 운영한다. V-GREEN 충전 및 배터리 교환망과 판매를 연계하고 있다. 야디는 전국 약 400개 이상의 공식 판매점을 운영한다. 2026년 베트남 녹색에너지인프라 주식회사(VGX)와 협업체 공용 배터리 교환망 구축에 착수했다.

베트남 수입 시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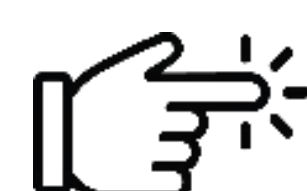
한-베트남 FTA 적용 시 HS Code 8711.60.11~19는 70%, 8711.60.92~99는 65%의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최혜국관세율(MFN) 55%가 더 낮아 한국산 전기이륜차에는 55%가 부과된다. 완성차를 부품 상태로 단순 조립하는 방식만으로는 관세를 낮추기 어렵다. 리튬이온 배터리팩과 구동모터의 한-베 FTA 협정세율은 0%다. 모터 사이클 휠 림은 32%다.

인증 및 판매 유의사항

수입품 라벨에 베트남어 필수 정보가 부족하면 베트남어 보조라벨을 추가해야 한다. 완성차 형태 수입 전기이륜차는 QCVN 14:2024/BGTVT 등 국가기술기준 인증 대상이다. 현지 생산·조립 차량은 별도의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구동배터리와 전기모터 기술기준은 2026년 10월 9일부터 QCVN 31:2026/BXD, QCVN 30:2026/BXD로 변경 시행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륜오토바이는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시사점

베트남 전기이륜차 시장은 저배출구역(LEZ) 정책 시행과 현지 생산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완성차를 부품 상태로 분해해 단순 조립하는 방식은 관세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다. 신규 진입 기업은 완성차 수출보다 모터, 배터리, 제어장치 등 핵심 부품 공급과 현지 생산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김 시장동향

한국산 마른김·조미김, 베트남 수입시장서 점유율 1위
K-푸드 스낵 열풍 타고 커지는 베트남 김 시장, 경쟁 구도는 다국적화

상품명 및 HS코드

베트남에서 김은 마른김과 조미김으로 나뉘어 수입 통계가 관리된다. 단순 건조 형태인 마른김은 HS코드 1212.21(식용 해조류)로, 기름과 소금 등으로 가공된 조미김은 HS코드 2008.99(기타 조제 식용 식물성 생산품)로 분류된다. 다만 두 HS코드 모두 미역·다시마 등 다른 해조류나 견과류 가공품까지 포괄하는 넓은 분류여서, 통계 해석 시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수입 동향

한식·일식 인기 확산에 힘입어 베트남 내 김 소비가 식당용에서 가정용 식재료 및 건강 스낵으로 확대되고 있다. 짜지 않으면서 감칠맛이 살아있는 풍미에 올리브·버터·김치·바비큐·뽕암 등 다양한 조미 라인업이 더해지며 맵고 향이 강한 맛을 선호하는 현지 입맛과 잘 맞아떨어진다. 천연 해조류라는 건강 이미지, 프리미엄 식물성 기름 사용, 휴대에 편한 소포장 형태도 소비 확대를 뒷받침한다. IMARC그룹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 김 시장은 2025년 3900만 달러에서 2034년 7660만 달러로 연평균 7.5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베트남 정부(농업농촌개발부)가 2030년까지 해조류 연간 생산량을 2023년 15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잠재양식 가능면적(90만ha) 대비 실개발 면적은 약 1.8%에 그쳐 원료 기반은 아직 초기 단계다.

유통구조

김은 가볍고 부피가 작아 물류비 부담이 적고 유통기한이 길어(마른김 기준 약 12~36개월) 국제 유통에 유리하다. 도매상·식료품점 등 전통채널, 슈퍼마켓·대형마트·편의점 등 현대채널, Shopee·Lazada·TikTok Shop·Tiki 등 전자상거래, 호텔·레스토랑·단체급식(호레카)까지 채널이 다변화되어 있어 개인 소비자와 기관 구매자를 모두 아우른다.

주재국 수입동향

마른김 수입은 2025년 총 3099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0% 늘었다. 한국산이 2227만 달러(전년 대비 68.7%↑)로 전체의 71.9%를 차지해 부동의 1위이며, 2위 인도네시아(13.2%)는 오히려 29.6% 감소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조미김은 2025년 전체 수입액이 5415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 줄었지만, 한국산만은 2978만 달러(전년 대비 6.9%↑)로 점유율을 55.0%까지 끌어올렸다. 2위 중국(21.3%), 3위 태국(15.4%)이 뒤를 이었고, 미국산은 전년 대비 78.4% 급감했다.

경쟁동향

한국의 동원·청정원·사조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베트남 현지 브랜드 Tohogenkai, 태국 브랜드 Taokaenoi, 미국 코스트코 자체브랜드 Kirkland 등이 함께 경쟁하는 다국적 구도다.

관세율

한국산 김은 한-아세안 FTA(AKFTA)와 한-베트남 FTA(VKFTA) 모두에서 원산지 규정 충족 시 0%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FTA 미적용 시 정상세율은 마른김 15%, 조미김 45%이며, MFN 세율은 각각 10%, 30%다. 두 협정은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달라, 수출기업은 유리한 협정을 골라 그에 맞는 원산지증명서(Form AK 또는 Form VK)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인증

수입식품은 유통 전 자가공표 또는 제품신고 등록이 필요하며,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유효기간 최대 12개월)와 베트남어 라벨링이 요구된다. 절차는 통상 10~15일 소요된다. 가공되지 않은 마른김은 식물검역(농업농촌개발부 산하 식물보호국 사전 승인) 대상이나, 조미·로스팅을 거친 조미김은 식물검역이 면제되고 식품안전검사만 진행하면 된다.

시사점

한국산 김은 마른김·조미김 모두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으나, 이미 지위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는 '진입'보다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프리미엄 오일을 활용한 고급화 라인이나 현지 입맛에 맞춘 매운맛·김치맛 등 신제품 개발이 유효해 보인다. 다만 베트남 정부의 해조류 증산 목표, 태국산의 저가·유통 확산 전략, 일본산의 프리미엄 틈새 전략 등 변수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마른김과 조미김의 통관 요건이 다른 만큼 수출 전 품목분류와 서류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바디클렌저 시장동향

피부관리·클린뷰티 수요 확대에 따른 바디클렌저 제품 다변화
한국산 수입 증가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시장동향

베트남 샤워용품 시장은 2025년 6조 VND를 넘어섰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9.5% 성장한 6조 6,743억 VND에 이를 전망이다. 2029년에는 8조 6,489억 VND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테고리별로는 바디워시·샤워젤이 2025년 매출 기준 60.4%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고체 비누 15.7%, 여성청결제 9.8%, 액상 비누 9.8%, 손 소독제 4.6%, 바디 파우더 0.6% 순이다. 보습과 저자극, 천연 성분을 강조한 클린뷰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수입동향

2025년 바디클렌저(HS 3401.30) 수입액은 1억 3,100만 달러다. 전년 대비 18.1% 감소했다. 한국은 2,500만 달러로 점유율 19.1%를 기록해 1위 공급국이다. 2024년 대비 13.6% 증가했다. 중국은 1,900만 달러로 점유율 14.5%, 2위다. 전년 대비 58.3% 증가해 상위 공급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프랑스 13.7%, 일본 12.2%, 태국 7.6%가 뒤를 이었다.

현지시장 경쟁동향

현지 브랜드 코쿤, 사오 타이 즈엉, 토라카오는 베트남산 원료와 비건, 클린뷰티를 내세운다. 코쿤의 An Giang palmyra sugar shower gel은 500ml 기준 241,000 VND에 판매된다. 해외 브랜드는 유니레버의 라이프부이, 도브와 위프로의 엔샹떼르가 있다. 라이프부이는 남성용 샤워젤 Eternal Ice, Cedar를 출시했다. 엔샹떼르의 Charming Perfumed Shower Gel은 650ml 기준 159,000~199,000 VND다. 한국 브랜드로는 쿤달과 LG생활건강의 온더바디가 있다. 쿤달의 Honey & Macadamia Body Wash는 500ml 기준 265,000~432,000 VND다. 온더바디의 White Pearl Perfume Shower는 500g 기준 169,000 VND다.

유통구조

2025년 기준 오프라인 소매가 전체 유통의 84.1%를 차지한다. 이 중 식료품 소매점이 60.7%로 가장 크다. 세부적으로 슈퍼마켓 28.1%, 소규모 식료품점 18.1%, 하이퍼마켓 12.3%, 편의점 2.2%다. 건강 및 뷰티 전문점은 21.5%다. 이커머스 비중은 2020년 10.7%에서 2025년 15.9%로 확대됐다. 쇼피, 라자다, 틱톡샵을 통한 판매가 늘고 있다.

관세율

HS Code 3401.30의 기본세율은 40.5%다. 최혜국관세율(MFN)은 27%다.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각각 5%다.

인증 및 시사점

화장품 라벨링은 시행령 제37/2026/NĐ-CP호를 따른다.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베트남어 필수 정보가 부족하면 보조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제품 공표는 시행규칙 제06/2011/TT-BYT호와 제34/2025/TT-BYT호에 따른다. 위임장과 자유판매증명서(CFS)가 필요하다. 소비는 고체비누에서 액상 바디워시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향기와 보습 등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유통과 이커머스를 병행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주말여행이 키우는 베트남 캠핑·하이킹시장

국내여행 1억3700만 회... 도시 청년층 중심 캠핑·트레킹 확산

장비 시장규모, 2025년 4억7400만 달러에서 2032년 6억6900만 달러로 성장 전망

베트남 국내여행은 2025년 1억3700만 회다. 도시 청년층 중심으로 캠핑·트레킹이 확산하고 있다. 하이킹 장비 시장은 2025년 4억7400만 달러 규모다. 6Wresearch는 2032년 6억6900만 달러로 전망했다.

생활형 여가로 번지는 베트남 캠핑

하노이 인근 동도호·다이라이·바비·속선은 근교 캠핑지다. 사파·하장·목쩌우·달랏에서는 트레킹·글램핑이 함께 성장 중이다. 6Wresearch에 따르면 하이킹 장비 시장은 2026~2032년 연평균 5.0%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 범위는 의류·신발·배낭·장비를 포함한다. 과거 주 고객은 산악 동호인·전문 트레커였다. 최근에는 20~30대 도시 거주자와 가족 단위 여행객, 글램핑 사업자로 넓어졌다. 국내여행은 2025년 전년 대비 24.5% 늘었다. 2019년(8500만 회)과 비교하면 61.2% 증가했다. 2026년 7월 베트남은 세계은행 중상위소득국으로 분류됐다. 캠핑업계 관계자 A는 하노이무역관 인터뷰에서 주말 캠핑 확산이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밝혔다. AppotaPay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여행객 91%가 콘텐츠 제작자의 추천·후기를 참고했다. 73%는 여행 계획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 주요 플랫폼은 페이스북(95%)과 틱톡(83%)이다.

캠핑·글램핑·트레킹으로 세분화되는 야외활동 수요

주말형 캠핑과 글램핑, 트레킹·하이킹이 각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마운틴 마라톤, 트레일 마라톤, 정글 마라톤 등 산악 행사도 열린다. 제품시장은 입문형·중급형·프리미엄으로 나뉜다. 입문형은 수십만~300만 동 미만(약 115달러 미만) 으로, 일반 텐트, 접이식 의자·테이블,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이 있으며 초보 캠퍼와 단기 체험 수요층이 주 고객이다. 중급형은 300만~1000만 동(약 115~380달러) 으로, 내후성 텐트, 고강도 의자, 다중연료 스토브 등 이 해당하며 안정 소득이 있는 젊은 소비자가 주 고객이다. 프리미엄은 수백~수천 달러대 로, 대형 글램핑 텐트, 고정 프레임, 침대·매트리스 등 이 있으며 글램핑·생태관광 사업자와 리조트, 고소득 소비자가 대상이다. 현재는 입문형 판매가 주도 하나, 중급형 수요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유통 중인 2인용 텐트는 브랜드별로 61.4~153.6달러 이고(2025년 8월 기준, 1달러=2만6000동), 침낭은 34.6~45.8달러, 스토브는 19~57.6달러 선이다. PwC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 54%는 재활용·지속가능 소재 제품에 최대 1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늘어나는 캠핑 수요... 해외 브랜드 진출도 확대

데카트론은 직영매장과 자체 전자상거래망을 운영 하는 반면, 코베아·스노우라인·콜맨·네이처하이크는 현지 유통 업체와 WeTrek·FanFan 등 전문매장에서 판매한다. 스노우라인·코베아는 한국 브랜드 이고, 데카트론은 프랑스, 콜맨은 미국, 네이처하이크·파이어메이플은 중국 브랜드다. 베트남은 섬유·봉제 기반으로 텐트·침낭·배낭을 생산·수출 하지만, 현지 기업의 자체 브랜드와 내수 유통망은 제한적이다. 또한 스토브·조명 등 비봉제 장비의 생산 기반도 상대적으로 취약 하여, 소비시장에서는 해외 브랜드·수입제품 비중이 높다.

시사점

베트남 캠핑·하이킹 시장은 소비층과 제품군이 함께 넓어지는 단계다. 판매량은 입문형이 주도하나, 중급형·프리미엄 제품도 별도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다만 가격 민감도와 저가 수입제품으로 가격 경쟁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브랜드는 텐트·캠핑가구·취사도구 분야에서 판매되고 있다. 향후 현지 기후에 맞는 경량·방수 제품과 친환경 소재, 체험형 판매 수요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새로운 성장시장, 실버경제가 뜬다

2030년 60세 이상 인구 1,800만 명으로 고령친화 시장 본격 확대

돌봄·시니어 영양·의료기기 중심 진출 유망

의료기기 수입의존도 90% 이상, 한국산은 2025년 수입시장 1위

2030년 고령인구 1,800만 명...빠른 고령화가 베트남 실버시장 성장 견인

베트남은 2011년 고령화 단계에 진입했다. 2024년 60세 이상 인구는 1,42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비중은 9.3%다. 2025년 60세 이상 인구는 약 1,6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의 약 16% 수준이다. 2030년에는 약 1,8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34~2036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49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2024년 기대수명은 74.7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91명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베트남의 고령화 속도는 이보다 빠르다. 실버경제는 60세 이상 인구의 소비와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다. 의료, 제약, 주거, 영양, 금융, 관광, 이동보조기기, 돌봄기술,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한다. 고령자를 소비자이자 경제활동 주체로 보는 관점이 핵심이다. 2026년 3월 베트남 정부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약 900만 명의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약 40만 명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 연령대별 수요도 다르다. 65~70세는 활동성과 구매력이 높다. 예방건강, 영양, 여행, 여가, 평생학습 지출이 많다. 71~80세는 만성질환과 이동 불편이 늘어난다. 의료서비스, 보조기기, 전문돌봄 수요가 커진다. 80세 이상은 의존도가 높다. 24시간 돌봄과 재활, 전문요양 서비스 수요가 확대된다.

복지에서 성장산업으로... 베트남 실버경제 육성정책 준비 본격화

2026년 3월 실버경제 관련 국가회의가 열렸다. 팜 민 찌 당시 총리는 고령자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보장을 넘어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로 정책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2035년까지 국가 고령자 전략'이 발표됐다. Decision No.383/QD-TTg다.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고령친화 환경 및 서비스 기반 조성을 포괄한다. 2025년 말에는 Directive No.35/CT-TTg가 발표됐다. 산업무역부에는 베트남형 실버경제 모델 연구를 주문했다. 과학기술부에는 고령층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활동 참여 지원을 주문했다. 2026년 4월 레 민 흥 총리는 실버경제 개발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요양 체계와 전문인력, 민간투자 유인책 등 통합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향후 관련 법령에서 토지·세제·투자 지원책과 서비스 기준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시장 성장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돌봄·영양·의료기기 중심으로 시장 확대 전망**1) 돌봄 인프라**

Savills Vietnam에 따르면 시니어 돌봄시장 규모는 2024년 23억 달러다. 연평균 5.81% 성장해 2032년 36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돌봄 인프라는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하다. 2024년 민간 요양시설은 약 100곳에 불과하다. 기존 사회보호시설의 수용 능력은 전체 수요의 약 30%에 그친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전국 사회보호시설은 총 425곳이다. 공공시설 195곳과 비공공시설 230곳이다. 이 중 고령자 전용시설은 46곳에 불과하다. 고령인구 대비 요양시설 보급률은 약 0.07%다. 선진국의 5~7%와 큰 차이를 보인다. 높은 이용료와 전문인력 부족도 시장 확대를 제약한다. 최근에는 가족 중심 부양문화를 고려한 모델도 도입되고 있다. 2022년 하노이시는 Nhan Ai Day Care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2024년 호치민시에는 Genki House가 문을 열었다. 일본 Genki Living Energy와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모델을 적용한다. 현지 시니어케어 업체 관계자는 가족 친화적인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크다고 전했다.

2) 시니어 영양·건강기능식품

Ken Research에 따르면 베트남 영양·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5년 약 12억 달러 규모다. 물량은 18만 5,000톤이다. 이 중 고령자 대상 제품군이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의 고혈압 진단율은 40.2%다. 당뇨병 진단율은 35.0%다.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약국과 헬스·뷰티 유통채널에서는 칼슘, 콜라겐, 비타민D3 등 뼈·관절 건강제품이 판매된다. 홍삼, 비타민B, 오메가3 등 인지기능·심혈관 관리 제품도 있다. 근육 유지를 위한 단백질 보충제도 주요 제품군이다.

3) 의료기기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2023년 말 기준 16억 7,000만 달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8번째로 크다. 연평균 약 8% 성장해 2026년 말 2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베트남 내 만성질환자는 약 2,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베트남은 의료기기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미국이다. 2025년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액은 약 3억 2,000만 달러다. 전체 수입액의 16.3%로 국가별 1위다.

시사점

베트남 실버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다. 민간 부문 투자는 의료·재활·주거·여가를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Vin그룹은 일본 Well Group과 협력했다. 2025년 시니어 리빙 브랜드 Vin New Horizon을 출범했다. 2026년에는 치료·재활·회복 기능을 통합한 Vinmec Ocean Park 2를 개원했다.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기와 시니어 영양 제품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수입 수요와 유통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돌봄과 프리미엄 시니어 주거, 원격 모니터링 등 디지털 헬스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서비스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 미비한 제도 기반은 제약 요인이다. 현지 병원, 유통사, 개발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소득수준과 가족부양 문화에 맞춘 서비스 설계도 시장 진입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La Le 2 Wind Power Plant

Project Title	La Le 2 Wind Power Plant (Part of the Ia Le Wind Power Plant Complex)		
Project developer	Gia Lai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Project Duration	2026-2028	Total Cost [USD]	US 55.75 million
Location of the Project	Ia Le & Chu Puh Commune, Gia Lai Province, Vietnam		
Funding Source	Investor’s budget and Loan		
Ordering Method	ICB		
Type of bid	Investor selection () / F/S () / PMC () / Basic Design () / Detail Engineering () / FEED () / Procurement (√)/ EPC (√) / Construction (√) / Construction supervision (√) / Commissioning () / O&M () / Others(description)		
Bid Deadline	Q4/2026	Bidder Selection Method	To be decided
Project Profile (Background and Summary of the Project)	Main information: • Total land area: 27.3 ha • Capacity: 42 MW • Power generation: 123,780 MWh/year • Connection plan: The 220kV transmission line connects to the existing 220kV Pleiku 2 - Krong Buk transmission line. • Project duration: 50 years Tentative Progress: • Q2-Q3/2026: Approval of Investment policy and Investor Selection • Q3/2026-Q1/2027: F/S report Appraisal,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Technical design, PPA, Land clearance • Q4/2026: Bidding • Q1/2027-Q1/2028: Construction • Q1/2028: COD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미국 경제통상 리포트(US26-25)] 美 USTR 「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 USMCA를 통한 혁신적 원산지 규정(ROO)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
- ◆ 공급망 리스크 심화에 따른 USMCA 원산지 규정 강화 필요성 강조
- ◆ 원산지 규정 개정을 통한 역내 현지화 강화·비시장경제 제3국 의존 축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 ◆ 美,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확대와 공급망 중심의 방산 정책 추진
- ◆ 미국 방산시장은 계약·조달·보안 등 복합적인 정부 계약 체계 이해가 필수
- ◆ 공급망 편입과 현지화, 계약·컴플라이언스 역량 확보가 시장 경쟁력으로 부상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27)]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온쇼어링·자국산업 보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 트럼프 행정부, 핵심 공급망 강화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연속 발표
- ◆ 비우호국 의존 축소 및 미국 내 생산기반 강화(온쇼어링)이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 반영
- ◆ 국가·산업안보 관점에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이미연 주베트남 신임 대사, 코트라 동남아대양주 지역 본부 방문

이미연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가 8월 18일 하노이에 위치한 KOTRA 동남아대양주 지역 본부 겸 하노이 무역관을 방문했다. 동남아대양주 지역 본부는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등 11개국 15개 무역관을 총괄하고 있으며, 베트남에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3개 무역관이 진출해 있다.

KOTRA는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전시회, 무역사절단, 바이어 유치 등 마케팅 사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사화 사업, 공동물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기업 수요 및 경제·산업 동향 조사, FTA 활용 지원, 해외 인재유치 및 해외취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대사는 이날 방문에서 지난 4월 국민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8,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된 성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무역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사는 이후 코트라 수출인큐베이터 (Business Incubator) 사무실 방문하여 입주 기업을 격려했다. 화장품, 생활용품,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제품 설명을 청취한 뒤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GCOO Vietnam

베트남 유산·관광도시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김태호 대표

기업명

VietPM · VietSM

공동 운영 브랜드: GCOO Vietnam

사업분야

Green Mobility · Micro-mobility

Sustainable Tourism

기업 소개

- 후에(Huế) 황성 거점 운영 — 단순 대여업이 아닌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 2025년 VGBC LOTUS Green Service Provider(베트남 친환경 인증) 획득
- 영국정부 후원 CFA(기후금융엑셀러레이터) Vietnam 2026 Cohort 선정

기업 소개

VietPM과 VietSM은 베트남에서 GCOO 브랜드를 운영하며, 유산도시와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 마이크로 모빌리티(Green Micro-mobility)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에(Huế)는 이러한 모델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핵심 사업 지역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베트남의 유산·관광도시에서 누구나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GCOO Vietnam은 단순한 전기자전거 대여업체가 아니라 차량, 플랫폼, 스테이션, 현장 운영, 고객 서비스, 파트너 네트워크와 이동 데이터를 연결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에 시내와 주요 관광 거점에서 300여 대의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에 황성(Đại Nội Huế, 응우옌 왕조의 옛 황궁)을 비롯해 후에 시내에 40여 개 공식 스테이션을 구축해 관광객과 시민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GCOO Vietnam은 2025년 베트남그린빌딩협의회(VGBC)의 LOTUS Green Service Provider(친환경 서비스 인증)로 인정받았으며, 최근에는 영국정부가 후원하는 기후금융엑셀러레이터(CFA) Vietnam 2026 Cohort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는 단순한 인증과 선정이 아니라 실제 운영과 데이터를 통해 친환경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2030년까지는 베트남 유산·관광도시에 적합한 ‘Green Mobility Standard’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및 제품·서비스 설명

후에 황성 전기자전거

문화유산 보존과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에 둔 운영 모델

시내 스테이션 & 친환경 관광 코스

GCOO 앱 + Feniko 전기보트 연계
수륙 콤보 투어
Slow Travel Huế·M Travel과
Eco/Healing/Slow Tour 공동 개발

데이터 기반 Green Mobility

이용 데이터로 탄소감축량 추정
MRV(측정·보고·검증)로 표준화
해 ESG/Net-Zero 목표 지원

GCOO Vietnam의 핵심 사업은 공유 전기자전거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입니다.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으면서 전기모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도시를 천천히 경험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GCOO는 이러한 전기자전거를 차량, 앱 플랫폼, 스테이션, 현장 운영 및 관광 콘텐츠와 연결해 하나의 공유 모빌리티 인프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후에 황성 내 전기자전거 서비스입니다.

황성은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높은 유산 공간인 만큼 일반적인 공공 모빌리티와 달리 현장 인력, 차량 관리 및 고객 안내 등 별도의 운영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안전을 우선하면서도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둘째, 후에 시내 공공 스테이션과 친환경 관광 코스입니다.

이용자는 GCOO 앱을 통해 시내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저희는 이를 다양한 관광 경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eniko 전기보트와 연계해 수상에서는 전기보트, 육상에서는 GCOO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친환경 콤보 코스를 개발, 운영 중입니다. 올해 9월 2일 베트남 국경절 연휴부터는 후에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지역인 Ru Cha-Con Te를 연결하는 새로운 전기보트·전기자전거·전동카트 연계 친환경 관광루트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후에 관광은 황성과 왕릉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자연경관, 전통마을, 음식, 지역문화 등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에 Slow Travel Huế, M Travel 등과 함께 Eco Tour, Healing Tour, Slow Tour를 개발해 관광객이 후에를 더 깊이 경험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Green Mobility 솔루션입니다. GCOO 시스템은 이용 횟수, 이동거리, 이용시간 등의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이동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량을 추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MRV(Measure-Report-Verification, 측정·보고·검증)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해 파트너와 지방정부의 ESG 및 Net-Zero 목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한 견해

강점

모바일 결제·차량호출에 익숙한 소비자, 관광경험·체류기간 중시 트렌드 확산

유의점

높은 현지화 요구 — 한국 성공모델 이식이 아닌 지역 맞춤 운영모델 필요

애로사항

오토바이 중심 이동습관 전환의 어려움

2025년 10월 후에 대홍수로 서비스 중단·복구 — 자연재해 대응을 초기 설계에 반영

베트남은 기술, 지속가능한 관광,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 전자결제, 차량호출 서비스 등에 익숙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받아들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역시 단순한 방문객 수보다 관광 경험의 질, 체류기간, 지역 소비와 지속가능성을 더욱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관광객들의 베트남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넓히고 지역의 문화·경제·커뮤니티와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ESG, 탄소감축, Net-Zero가 중요해지면서 앞으로는 차량 대수뿐 아니라 친환경 이동 횟수, 이동거리, 탄소감축 효과까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반면 베트남은 높은 수준의 현지화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교통환경, 관광 특성, 이용자 행동에 맞는 운영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 시 애로사항

가장 큰 과제는 차량 자체보다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이동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후에 황성에서는 관광객 경험, 안전, 경관 및 문화유산 보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도심에서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스테이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기후 역시 큰 도전입니다. 2025년 10월 후에 대홍수로 일정 기간 서비스를 중단하고 침수 차량을 점검·복구해야 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피해 차량을 복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야외에서 운영되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자연재해 대응까지 초기 운영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가 매우 편리하고 보편적인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용자를 전기자전거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GCOO Vietnam은 오토바이를 모두 대체하기보다는 단거리 이동, 관광지 간 이동, 자유로운 이동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는 구간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탄소 데이터 역시 단순한 추정치를 넘어 ESG나 Net-Zero에 활용하려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MRV 체계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

STEP 1

후에 Green Mobility 생태계 강화

STEP 2

2027년부터 베트남 내 10여 개 도시로 확대

STEP 3

데이터 기반 플랫폼·MRV 방법론 고도화

STEP 4

2030년까지 'Green Mobility Standard' 구축

앞으로 네 가지 전략적 방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첫째, 후에 Green Mobility 생태계 강화: 최근 GCOO Vietnam은 후에시 관광국과 2026~2030년 Green Tourism·Green Mobility·Smart Tourism 분야의 장기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단위에서도 친환경 관광모델의 실증을 확대 중이며, 올 9월부터는 Hó a Châu 지역과 협력해 Ru Cha-Con Te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친환경 관광루트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후에의 문화유산, 생태관광지, 지역사회와 친환경 이동수단을 연결하는 하나의 장기적인 Green Tourism 생태계 구축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후에시 관광국 - GCOO Vietnam 전략적파트너십
MOU 체결식

둘째, 2027년부터 베트남 내 다른 도시로 사업 확대: 관광·문화유산·자연경관이 강점이거나 친환경 교통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10여 개 도시를 우선 검토 중입니다. 특히 후에에서 축적한 경험을 Reference Model(참고 모델)로 활용해 새로운 도시에서도 검증 → 데이터 수집 → 운영 최적화 → 단계적 확장의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Green Mobility 플랫폼 강화: 이동 횟수, 이동거리, 이용률, 예상 탄소감축량 등을 파트너가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고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MRV 방법론도 단계적으로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넷째, 2030년까지 'Green Mobility Standard' 구축: 저희의 목표는 가장 많은 차량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환경적 효과까지 측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운영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VGBC의 LOTUS Green Service Provider 인정 및 영국정부가 후원하는 기후금융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선정 역시 이러한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SG 가치 강화를 위한 노력



2025년 VGBC LOTUS Green Service Provider 인증서 수여식 (후에)

GCOO Vietnam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운영 자체가 지역의 ESG와 지속가능한 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Sustainable Tourism을 위한 ESG 파트너십 확대: 전기자전거 기반의 Slow & Eco Tour 상품들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지역 호텔 파트너들과는 Green City Hue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는 등 관광·숙박업계와 친환경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MRV 기반 데이터 표준화: GCOO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동거리, 이용 횟수 및 탄소감축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MRV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향후 기업과 지방정부의 ESG 성과관리 및 Net-Zero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Carbon Credit 시장에 대한 중장기 대비: 향후 베트남의 Carbon Credit 시장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친환경 이동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를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 기업 대상 조언

01

저비용 시장이 아닌 독립 시장으로 이해 — 현지 운영 역량 필수

02

‘시험-측정-개선-확장’ 방식의 단계적 접근

03

단기 성과보다 현지와 함께 성장하는 장기 관점 (Responsible Growth)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기업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베트남을 단순한 저비용 시장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독립적인 시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트남만의 소비자 행동과 운영환경이 있기 때문에 제품뿐 아니라 고객 경험과 비즈니스 모델까지 현지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고객·파트너·정부기관과 신속하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운영 역량도 중요합니다.

둘째, 처음부터 크게 투자하기보다 ‘시험 – 측정 – 개선 – 확장’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운영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적합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현지와 함께 성장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ESG 역시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로 보고,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GCOO Vietnam도 재무적 지속가능성, 환경,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고려한 ‘책임 있는 성장(Responsible Growth)’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이 한국기업에게 단순한 시장을 넘어,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새로운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CLOSING MESSAGE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새로운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 신규 규정 검토 및 시사점

1. 들어가며

2026년부터 새로운 규정들이 다수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투자 문턱은 낮추고 운영·관리에 관한 부담은 늘리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앞둔 우리 기업들이 알아두셔야 할 신규 규정들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 주요 변화 살펴보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투자법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투자 프로젝트를 먼저 승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투자 프로젝트 승인 없이 법인 설립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진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모든 외국인 투자 인허가 절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세무대행, 보험보조 서비스 등 다수 분야가 조건부 사업(정부의 인허가나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영위할 수 있는 업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총투자자본이 20% 이상 증가할 때 요구되던 투자 프로젝트 변경 허가 요건도 삭제되어, 기업의 경영 유연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7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소득세법은 기존 소득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소득, 가상자산, 탄소배출권, 국가도메인(.vn 도메인) 양도소득까지 과세 대상으로 명시해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민감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했을 뿐 아니라, 사내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학력, 관련 실무 경력, 필수 교육 이수라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까지 부여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분야의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현지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베트남어를 지원하거나 베트남 국가도메인을 사용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SNS는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베트남 현지 법인을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실시간 방송 판매)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어, 방송 판매 시 판매자는 제품 품질 기준 충족 증빙서류와 사업자 요건 충족서류를 사전에 호스트(방송 진행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소비재 기업은 벤더 또는 인플루언서와 계약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평균 7% 이상 인상되었고, 연금·사회보험 수당도 8%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출산과 관련해 둘째 자녀 출산 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남성 근로자에게도 1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인프라, 긴급 공사 등이 건설 허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 대규모 공사나 소방 설계 검토 대상 공사는 인허가 전에 구조 안전·소방 요건에 대한 전문 설계 검증을 의무적으로 통과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3. 마치며

최근 개정된 법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진입 문턱은 다소 낮추되, 내부 운영·관리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적으로도 이전에는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었던 절차들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위반으로 다루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제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현우 변호사

편집자 부기 — 관련 법령 근거

1. 개정 투자법 (법인설립 우선 허용)

법령: 투자법(Luật Đầu tư) 제143/2025/QH15호 (2025.12.11 통과) · 시행일: 2026.3.1 · 근거조항: 제19조 제2항 —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được thành lập tổ chức kinh tế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trước khi thực hiện thủ tục cấp, điều chỉnh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và phải đáp ứng điều kiện tiếp cận thị trường... quy định tại Điều 8..." · 후속 시행령 Nghị định 96/2026/NĐ-CP에서 IRC 취득 시한(12개월 이내) 등 세부사항 보완

2. 개인소득세법

법령: 개인소득세법(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제109/2025/QH15호 (2025.12.10 통과) · 시행일: 2026.7.1 (다만 거주자의 급여·사업소득 관련 규정은 2026 과세연도 전체에 소급 적용) · 시행령: Nghị định 253/2026/NĐ-CP (2026.6.30 공포, 2026.7.1 시행)

3.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개인정보보호법(Luật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제91/2025/QH15호 (2025.6.26 통과, "개정안"이 아닌 기시행 법률) · 시행일: 2026.1.1 · 시행령: Nghị định 356/2025/NĐ-CP (2025.12.31 공포, 2026.1.1 시행) — 민감정보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 자격요건(학력, 실무경력, 교육이수 등) 상세 규정

※ 위 법령 정보는 편집자가 베트남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별도로 확인한 내용으로, 필자(전현우 변호사)의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진용 회계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2026년 6월 30일자로 개정·시행된 개인소득세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베트남 정부는 정부조직법 No. 63/2025/QH15과 소득세법 No. 109/2025/QH15 및 동 법의 부분개정법인 No. 09/2026/QH16에 따라 소득세법("Personal Income Tax") 시행령 Decree No. 253/2026/ND-CP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부는 상기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한 2026년 6월 30일자 시행규칙 Circular No. 87/2026/TT-BTC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일(2026년 7월 1일)로 인해 기존 소득세법상 법제화되지 아니하였거나 혼선이 있었던 개념들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포함시키고 또한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일부 법령들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진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눈여겨 볼 주요사항 및 기존 대비 변화가 있는 부분을 영문 번역된 규정을 인용하면서 우리말로 해석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_ 시행령 DECREE NO. 253/2026/ND-CP

(I) ‘거주자’의 정의 _ Article 4. Resident individuals

A resident individual is a person who satisfies any of the conditions specified in Clause 2 Article 2 of the Law on Personal Income Tax, to be specific:

1. He/she is present in Vietnam for at least 183 days in 01 Gregorian calendar or for 12 consecutive months from the date of first arrival in Vietnam. In case of entry or exit, the date of arrival shall be deemed one day, and the date of departure shall be deemed one day. If a person enters and exits within 01 day, it will be considered one day of residence. The date of arrival and date of departure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authentication by the immigration authority on the passport, laissez-passer or documents relevant to the individual's purpose of entry or exit. An individual is considered to be present in Vietnam if he/she is physically present within the territory of Vietnam.

2. An individual is considered to a regular residence in Vietnam in one of the following cases:

a) He/she has a registered permanent residence. To be specific: For Vietnamese citizens: the specific place where the individual regularly and stably resides and has been registered as the permanent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residence laws. For foreigners: the permanent residence written in the Permanent Residence Card, or the temporary residence declared while applying for issuance of the Temporary Residence Car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b) He/she has residential leases in Vietnam a total duration of at least 183 days in the tax year. To be specific: An individual who does not have a regular residence as prescribed in Point a of this Clause but has residential leases with a total duration of at least 183 days in the tax year is also considered a resident individual, even if the leases are in different locations. Residential leases include hotels, guest houses, motels, hostels, workplaces, offices, regardless of whether the lease is concluded by the individual or his/her employer.

3. If an individual has a regular residence in Vietnam as prescrib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but is physically present in Vietnam for fewer than 183 days in the tax year, and is unable to prove his/her residency in another country, he/she will be considered a resident individual of Vietnam. A person's residency in another country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his/her Certificate of Residence. In cases where a person is from a country or territory that has an Agreement for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Vietnam but does not issue Certificates of Residence, photocopies of the individual's passport shall be provided as proof of residence duration.

해석 📖 기존에는 세법상 '거주자'의 판단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재량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이 많은 부분 개입되었지만, 금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의 판단규정이 보다 명확해졌음. 기존과 동일하게 역년 기준으로 최초 베트남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기산하여 최소 183일 이상을 체류한 경우와 최소 183일 이상의 주거목적 임대차한 거주지가 존재하는 경우 등의 조건에 추가로 '임시거주증'을 보유한 경우와 거주지 및 거소지의 정의에 있어서 'hotels, guest houses, motels, hostels, workplaces, offices' 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전부 포함하며, 아울러 183일 미만의 체류인 경우 타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의 '거주자'로 간주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2) 과세대상 소득 _ Article 6. Taxable income

1. Taxable income of individuals includes the types of income prescribed in Articles 7, 8, 9, 10, 11, 12, 13, 14, 15 and 16 of this Decree, except for tax-exempt income prescribed in Section 1 Chapter III of this Decree.

2. Taxable income of resident individuals and non-resident individuals:

a) Taxable income of resident individuals is income earned within and outside of the territory of Vietnam, regardless of where the income is paid or received.

b) Taxable income of nonresident individuals is income earned within the territory of Vietnam, regardless of where the income is paid or received.

3. The amount of PIT paid in a country that has an Agreement for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ay be deducted from the PIT payable in Vietnam under such Agreement.

해석 📖 기존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으나,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해석인 베트남 세법상 ‘비거주자’인 개인이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베트남에서 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개념이 단지 소득의 수령/지급의 개념을 넘어서서 ‘소득의 발생원천’의 문제까지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인 바, 이 점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는 세무행정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맺음말

다음호에서는 이번호에 이어서 개정된 개인소득세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회계법인**
Dong-A Audit & Advisory Co., Ltd.

엄진용 회계사

베트남 산업무역부, 이중용도물품 상세목록 발표

통사 제42/2026/TT-BCT호 - 2026년 9월 12일 시행

시행 타임라인



신규 법령

제42/2026/TT-BCT호

발표 2026.7.29 | 시행 2026.9.12

근거 법령

제259/2025/ND-CP호

시행령(2025.10.10 제정) 제7조 제2항

세관 공문

제19916/CHQ-GSQL호

(2026.8.5) 기타 법적 서류 코드 신고 안내

신고 코드

VX/ KO

VX 허가 대상 | KO 허가 대상 아님

개요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6년 7월 29일 「산업무역부 관리 권한 하에 있는 이중용도물품의 상세목록」을 규정하는 통사(Thông tư) 제42/2026/TT-BCT호를 발표했다. 동 통사는 2025년 10월 10일 제정된 「전략물자 무역통제에 관한 시행령 제259/2025/ND-CP호」 제7조 제2항에 근거하며 2026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베트남 관세 당국은 2026년 8월 5일 공문 제19916/CHQ-GSQL호를 통해 이중용도물품 세관신고 시 적용할 '기타 법적 서류 코드'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이중용도물품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고 단계에서 허가 대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 이중용도물품 상세목록 제정 및 주요 관리 대상 품목

통사 제42/2026/TT-BCT호는 시행령 제259/2025/ND-CP호 제7조 제2항에 따라 산업무역부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이중용도물품의 상세목록을 부록으로 제정했습니다.

해당 목록은 HS Code, 물품 설명, 기술적 특성 및 참고용 ECCN 번호 등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의 HS Code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사양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HS Code는 목록에 기재된 자릿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4자리 HS Code는 해당 4자리 전체, 6자리 HS Code는 해당 6자리 전체, 8자리 HS Code는 해당 8자리 품목만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ECCN 번호는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HS Code가 목록에 존재하는지만 확인하기보다는 HS Code와 물품의 설명 및 기술적 특성이 실제 목록상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목록에는 전자제품, 화학물질, 금속·합금, 특수 소재, 항공·무인기 등 산업·기술 분야별 다양한 이중용도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무역부 관리 대상 이중용도물품

No	분야	HS Code	주요 품목	핵심 기술요건	ECCN 참조번호
1	전자제품	85044090	고출력 DC 전원 공급 장치	100V 이상, 500A 이상의 출력으로 연속 작동 가능하며 전류 또는 전압 안정성 0.1% 미만	3A226
2	전자제품	85044090	고전압 DC 전원 공급 장치	20kV 이상, 1A 이상의 출력으로 연속 작동 가능하며 전류 또는 전압 안정성 0.1% 미만	3A227
3	전자제품	85044040, 85044090	주파수 변환기	다상 출력 40VA 이상, 600Hz 이상에서 작동하며 제어 단계 또는 주파수 정확도 0.2% 미만	3A225
4	화학물질·폭약	36020000	고성능 폭약 또는 함유 물질	고성능 폭약 2% 이상 함유, 결정 밀도 1.8g/cm³ 이상, 폭발 속도 8,000m/s 이상	1C239
5	화학물질	29209000	질산에스터류	트리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트리메틸올에탄 트리니트레이트, 디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등	1C111.c
6	반도체 소재	28500000	고순도 인·비소·안티몬 수산화물	순도 99.999% 이상	3C004
7	반도체 소재	29319090	알루미늄·갈륨·인듐 고순도 유기금속 화합물	금속 기준 순도 99.999% 이상	3C003.a
8	특수 소재	39269099	선택틱 폼	수심 1,000m 이하 수중 사용을 위해 설계되고 밀도 561kg/m³ 미만	8C001
9	금속·합금	81041900, 81049000	고강도 마그네슘 합금	인장강도 345MPa 이상 및 부식속도 1mm/년 미만	1C002.b
10	금속·합금	75022000 등	고강도 니켈 합금	고온에서의 응력 파괴 수명 또는 저주기 피로 수명 등 특정 기준 충족	1C002.b

※ 품목 1-10 / 전자제품 · 화학물질·폭약 · 화학물질 · 반도체 소재 · 특수 소재 · 금속·합금

No	분야	HS Code	주요 품목	핵심 기술요건	ECCN 참조번호
11	금속·합금	81082000, 81089000	고강도 티타늄 합금	고온에서의 응력 파괴 수명 또는 저주기 피로 수명 등 특정 기준 충족	1C002.b
12	금속·합금	76012000 등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473K 에서 인장강도 240MPa 이상 또는 298K 에서 415MPa 이상	1C002.b
13	금속·합금	72253090 등	마레이징 초고강도강	특정 인장강도 기준을 충족하는 판·시트·튜브·파이프 등	1C116
14	금속·합금	81019990	텅스텐 및 고텅스텐 합금	텅스텐 함량 90% 이상, 내경 100~300mm , 중량 20kg 이상인 특정 제품	1C226
15	금속·합금	810610	고순도 비스무트	순도 99.99% 이상, 은 함량 10ppm 미만	1C229
16	금속·합금	81041100 등	고순도 마그네슘	금속 불순물 200ppm 미만, 붕소 10ppm 미만	1C228
17	금속·합금	81123100 등	하프늄 및 하프늄 합금	하프늄 함량 60% 초과 화합물 등	1C231
18	금속·합금	81121200 등	베릴륨 및 베릴륨 합금	베릴륨 금속 및 베릴륨 50% 이상 함유 합금·화합물 등	1C230
19	무인 항공기	8806	무인항공기(UAV)	조종사의 직접적인 시야 밖 비행을 위해 설계되고 작동시간 1시간 이상 또는 비행시간 30분 이상 및 25노트 이상 돌풍에서 이륙·안정비행 가능	9A012

※ 품목 11-19 / 금속·합금 · 무인항공기

※ 주: 제42/2026/TT-BCT호 전체 목록이 아닌 주요 분야 및 대표 품목 중심으로 요약함. 실제 해당 여부 판단 시 HS Code, 품목 설명 및 기술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2. 세관, 이중용도물품 신고코드 ‘VX·KO’ 안내

관세당국은 2026년 8월 5일 공문 제19916/CHQ-GSQL호를 통해 제259/2025/ND-CP호 부록 I에 규정된 수출용 이중용도물품,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 환적, 경유 및 허가에 따른 경유 물품의 세관신고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물품을 신고할 경우 세관신고자는 수출 및 수입 유형에 해당하는 ‘기타 법적 서류 코드(Mã văn bản pháp luật khác)’를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 코드	신고 기준
허가가 필요한 이중용도물품	VX	허가 대상 이중용도물품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
허가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KO	관련 HS Code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허가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한 해당 물품이 다른 규정에 따라 수출,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 환적, 경유 또는 기타 형태의 운송에 대해 별도의 허가나 조건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적 문서에 따른 코드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누락·오류 시 수정 또는 사후통관심사 가능

지역 세관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물품의 HS Code가 제259/2025/ND-CP호 부록 I의 이중용도물품 관련 HS Code에 해당함에도 신고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법적 서류 코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후통관심사·검사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사후통관심사 및 검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용도물품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 대상인 경우 필요한 허가를 확보한 후 세관신고 단계에서 VX 코드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제도 변화로 베트남의 이중용도물품 관리체계가 품목 지정에서 실제 세관신고 단계까지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제42/2026/TT-BCT호가 2026년 9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관련 품목의 수출·재수출·환적·경유 시 이중용도물품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세목록은 HS Code뿐만 아니라 품목의 성능·순도·함량·강도 등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HS Code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UTHOR · CONTACT

작성

[이여람 관세사]

KOTRA 하노이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문의

T [024-3946-0511 (620)]

E [yeoram@kotra.or.kr]



Ninh Binh

I. 기본정보

II. 투자 환경

1. 교통시스템
2. 관광 및 자연자원
3. 산업단지·경제구역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현황 및 방향성
4. 투자 인센티브 정책

III. 외국인 투자 현황

IV. 닌빈성 산업단지 현황

1. 산업단지 개발계획
2. 신규 경제구역 및 첨단기술단지

V. 유망 투자 분야

VI. 투자 유치기관 정보

자료원: 닌빈성 투자·무역진흥센터

I. 기본 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 3,946 평방 킬로미터 • 인구 : 약 441만 명 • 도시화율: 36 % (2025)
지정학적 위치	• 홍강 삼각주 남부에 위치하며, 하노이와 베트남 북부 연안 지역 및 • 북중부 지역을 연결하는 입지
교통 시스템	• 도로: 북남고속도로, 닌빈-하이퐁 고속도로 등 2개 고속도로와 국도 1A호선, 지방도로망 구축 • 수운: 홍강 및 지류를 활용한 내륙수로망 이용 가능 • 철도: 북남철도(하노이-사이공) 통과 • 항만: 기존 남딘성 지역의 하천항 및 해항 보유, 하이퐁-꽝닌 지역 주요 항만과 연결
GRDP 성장률 (2025년 기준)	• GRDP 성장률: 10.65 % • 1인당 GRDP: 3,390 달러
경제 규모 산업별 성장률	• 수출: 약 269억 달러 • 수입: 약 244.6억 달러
경제구조	• 제조업/건설업 : 47.05 % 서비스업 : 34.39% • 농림어업 : 11.04% 생산물세 (보조금 차감): 7.52%
인적자원	• 경제활동인구: 약 240만 명(전체 인구의 약 55%) • 직업훈련 이수율: 70%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률: 30%
평균임금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준 • 제2지역: 월 473만 VND(약 26만 원) • 제3지역: 월 414만 VND(약 23만 원) • 제4지역: 월 370만 VND(약 21만 원)
외국인 투자	• 2025년 말 기준: 유효 FDI 프로젝트 748건, 총 등록투자금액 145억 730만 달러 • 2026년 상반기: 신규 FDI 프로젝트 25건, 신규 등록투자금액 4억 3,260만 달러

응에안 성의 위치



닌빈성의 위치

II. 투자 환경

1. 교통 시스템

도로	수운	
• 남북 교통 핵심축: 동부 북남고속도로 (꺼우제-닌빈 구간, 마이선-국도 45호선)를 통해 하노이까지 약 2시간(약 90km) 소요 • 국도망: 국도 1호선, 10호선, 45호선, 12B호선, 21호선, 21B호선, 37B호선, 38호선, 38B호선 등을 통해 홍강 삼각주 및 북중부 지역과 연결	• 다이강(Sông Đáy), 황룡강(Sông Hoàng Long) 및 내륙수로를 통해 북부 연안 수운망과 직접 연결 • 대량 화물 및 원자재 운송에 활용 가능	
철도	항공	항만
• 북남철도 통과 • 닌빈(Ninh Bình)역은 주요 철도역 중 하나로, 현대화·개보수를 통해 여객 및 화물 운송 수요에 대응	• 현재 성 내 전용 공항 없음 • 인근 공항과 연계: 노이바이 국제공항(하노이, 약 120km), 깃비 국제공항(하이퐁, 약 130km), 토쑤언 공항(타인호아, 약 90km) ※거리 기준: 닌빈성 화르(Hoa Lư)	• 내륙항: 닌푹(Ninh Phúc) 하천항은 1급 내륙수로항으로, 최대 3,000DWT급 선박 접안 가능 • 해상항만 연계: 고속도로 및 국도를 통해 하이퐁 국제항만군(락후옌항, 딘부항) 접근 가능

2. 관광 및 자연자원

관광	수자원 및 토지	광물자원
• 베트남의 대표적인 생태·문화·역사 관광 중심지 중 하나 • 짱안(Tràng An) 관광단지(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바이딘 사원, 땀꼭-빅동, 꾸옥프엉(Cúc Phương) 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자원 보유 • 2025년 관광객 수 약 1,940만 명 기록 • 관광산업을 핵심 경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유산도시 개발, 야간경제, 고급 서비스 및 녹색전환과 연계한 고품질 생태·문화·휴양·체험 관광 중심지로 발전 추진	• 다이강(Sông Đáy), 황룡강(Sông Hoàng Long) 및 양질의 지하수 등 풍부한 수자원 보유 • 산업·서비스 개발용지는 평야 및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부지 확보 및 토지 정리에 유리	•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하여 건축자재·시멘트 산업 원료로 활용 가능하나, • 현재 관련 산업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점토, 모래 및 천연광천수(꺼가, Kênh Gà) 등 보유

바이딘 사원 (Bái Đính Pagoda)



땀꼭-빅동 관광지 (Tam Cốc-Bích Động)



짱안 생태관광지 (Tràng An)



짱안 골프 리조트

3. 산업단지·경제구역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현황 및 방향성

현황	개발 방향
•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 : 지안커우(Gián Khẩu), 칸푸(Khánh Phú), 땀디엵 I-II(Tam Điệp I-II), phúc선(Phúc Sơn), 화사(Hòa Xá), 미쭙(Mỹ Trung), 바오민(Bảo Minh), 바오민 확장(Bảo Minh mở rộng), 랑동(Rạng Đông), 미투언(Mỹ Thuận), 칸끄(Khánh Cư), 동반 I-II-III-IV(Đồng Văn I-II-III-IV), 찌우선(Châu Sơn), 화막(Hòa Mạc), 타인리엠(Thanh Liêm), 타이하(Thái Hà), 김방 I(Kim Bảng I) 등 • 주로 기계제조, 자동차 조립, 전자부품, 고급 섬유·의류 산업 프로젝트 유치 • 대표적으로 지안커우 산업단지에는 현대-타인공(Hyundai-Thành Công) • 자동차 생산단지가 위치	• 기존의 소재·건축자재 중심 산업에서 첨단기술·친환경 산업, 기계제조, 자동차 조립 및 부품·소재 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 •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는 제한·축소하고, 녹색경제 및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과 연계한 생태산업단지 모델 확대 추진

4. 투자 인센티브 정책

닌빈성은 정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최대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

- 토지사용료, 토지 임대료 및 토지사용세 감면·면제
- 일반 세율보다 낮은 법인소득세율을 일정 기간 또는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적용
- 고정자산, 생산용 원자재·자재 및 부품 등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수출입관세 관련 법령에 따른 적용)
- 신속상각 적용 및 과세소득 산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 한도 확대

※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투자 분야 및 프로젝트 시행 지역에 따라 상이함.

III. 외국인 투자 현황

2025년 말 누적 기준: 유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748건, 총 등록투자금액 145억 730만 달러

2026년 상반기: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25건 신규 유치, 신규 등록투자금액 4억 3,260만 달러

현재 20개 산업단지 운영 중, 총 1,178건의 입주 프로젝트 유치, 이 중:

- 외국인투자 : 573건, 총 등록투자금액 113억 7,500만 달러
- 한국 투자 : 150건, 총 투자금액 23억 달러 이상

순번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소재지(산업단지)	총 투자금액 (USD)
1	Seoul Semiconductor Vina Co., Ltd.	LED 칩, LED 패키지, 반도체 제품, LED 부품 및 LED 모듈 생산·조립·가공	동반 (Đồng Văn) I 산업단지	525,000,000
2	Ace Antenna Co., Ltd.	통신장비 생산(무선 안테나, 무선주파수 (RF) 제품)	통신장비 생산(무선 안테나, 무선 주파수(RF) 제품)	165,700,000

순번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소재지(산업단지)	총 투자금액 (USD)
3	MCNEX VINA Co., Ltd.	카메라 모듈, 자동차 전자부품 및 스마트 기기 부품 생산	푼선 (Phúc Sơn) 산업단지	142,000,000
4	Kortek Vina Co., Ltd.	영상 모니터링 장비, 전자 디스플레이, 프린터 및 토너 카트리지 생산·가공·조립, 관련 전자부품 및 전자게임기·부품 조립	동반 (Đồng Văn) IV 산업단지	138,000,000
5	KMW Vietnam Co., Ltd.	무선통신 장비 및 LED 조명 생산	동반 (Đồng Văn) I 산업단지	100,000,000
6	TCE VINA DENIM JSC	직물 생산 및 염색	호아싸 (Hòa Xá) 산업단지	85,186,000
7	YoungOne Nam Dinh Co., Ltd.	수출용 의류 생산·가공	호아싸 (Hòa Xá) 산업단지	72,965,000
8	Anam Electronics Vietnam Co., Ltd.	스피커 시스템, 음향 증폭기 및 디지털 플레이어, 영상 모니터링 장비 및 전자 디스플레이 생산	동반 (Đồng Văn) IV 산업단지	68,680,000
9	Dorco Vina Co., Ltd. – Ha Nam Branch	Dorco Vina Co., Ltd. – Ha Nam Branch	호아막 (Hòa Mạc) 산업단지	45,200,000
10	ADM21 Vietnam Co., Ltd.	자동차 와이퍼 시스템 생산·가공	카인푸 (Khánh Phú) 산업단지	37,000,000

IV. 닌빈성 산업단지현황

1. 산업단지 개발계획

2050년까지의 계획에 따라 닌빈성에는 총 97개 산업단지(KCN), 총면적 47,795.88ha가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운영 중:20개, 총면적 4,987.68ha
- 부지 정리 및 기반시설 조성 중: 12개, 총면적 4,069.29ha
- 개발계획 승인 완료·미설립: 3개, 예정면적 671.73ha
- 개발계획 수립 중: 9개, 예정면적 3,273.28ha
- 계획기간 내 개발 예정·계획 미수립: 8개, 예정면적 1,835ha
- 개발계획 추가 예정: 45개, 예정면적 32,958.9ha

투자유치 중인 주요 산업단지

순번	산업단지명	위치	면적	주요 정보	개발·인프라 투자자
1	동반 III 확장 지원산업단지	주이띠엔(Duy Tiên), 띠엔선 (Tiên Sơn)	223ha	잔여 산업용지: 57ha 임대료: 120~140 USD/m ² 인프라 사용료: 약 0.61 USD/m ² /년	TASECO 부동산투자 (+84) 0946764582
2	쩌우장 II 산업단지	주이띠엔(Duy Tân)	250ha	산업용지: 177.9ha (기반시설 조성 중) 임대료: 위치·면적에 따라 상이 인프라 사용료: 0.7 USD/m ² /년	Thanh Bình 산업단지 인프라개발투자 (+84) 0923605866
3	타이하 산업단지	쩨트엉(Trần Thương), 박리 (Bắc Lý)	200ha	잔여 산업용지: 26.4ha 임대료: 100 USD/m ² 인프라 사용료: 약 0.46 USD/m ² /년	Hợp Tiến 유한회사 (+84) 0987999264
4	미투언 산업단지	미록(Mỹ Lộc), 히엔카인(Hiến Khánh)	158.6ha	잔여 산업용지: 19ha 임대료: 110~120 USD/m ² 인프라 사용료: 0.5 USD/m ² /년	Đại Phong 인프라건설 투자 JSC (+84) 0961716777
5	VSIP 하이롱 산업단지	자오빈(Giao Bình), 자오흥 (Giao Hưng), 해안도로 인접	180ha (1단계)	산업용지: 120ha (기반시설 조성 중) 임대료: 110 USD/m ² 인프라 사용료: 0.8 USD/m ² /년	베트남 싱가포르 산업단지·도시개발 JSC (VSIP) (+84) 0888766280
6	동반 V 산업단지	주이띠엔(Duy Tiên), 띠엔선 (Tiên Sơn)	237.29ha	산업용지: 179.7ha (기반시설 조성 중) 임대료: 110~115 USD/m ² 인프라 사용료: 0.6 USD/m ² /년	Hà Nam 인프라 JSC (+84) 0904321703
7	민쩌우 산업단지	동틴(Đồng Thịnh), 응이아흥 (Nghĩa Hưng)	100ha	잔여 산업용지: 67.75ha (기반 시설 조성 중) 임대료: 110 USD/m ² 인프라 사용료: 0.5 USD/m ² /년	Thịnh Vượng Minh Châu JSC (+84) 0889666226 / 0974505320
8	쭙타인 산업단지	띤민(Tân Minh)	200ha	산업용지: 134ha (기반시설 조성 중) 임대료: 95~100 USD/m ² 인프라 사용료: 0.6 USD/m ² /년	Nam Định 산업단지 인프라개발투자 JSC (+84) 0964420028
9	랑동 섬유·의류 산업단지	랑동(Rạng Đông)	519.2ha	잔여 산업용지: 270.76ha 임대료: 위치·면적에 따라 상이	Rạng Đông 인프라개발투자 JSC (RDIP) (+84) 0839899988

2. 신규 경제구역 및 첨단기술단지

2.1. 닌꺼(Ninh Cơ) 경제구역

- 위치: 닌빈성 남부에 위치하며, 랑동(Rạng Đông), 꾸이녓(Quỹ Nhất), 하이틴(Hải Thịnh), 하이쑤언(Hải Xuân) 지역 및 해당 지역 남부 해안 매립지를 포함. 해안선과 1급 및 특별급 내륙수로(락장(Lạch Giang), 꾸어다이(Cửa Đáy) 등)를 기반으로 수운 연결성이 우수하며, 홍강 삼각주 주요 물류 노선과 연계 가능
- 승인 면적: 13,950ha
- 확장 계획 면적: 80,318ha (육지 40,344ha, 해면 39,974ha)
- 3개 기능 구역: 제1구역: 도시 서비스·관광 / 제2구역: 산업 지원 서비스 / 제3구역: 산업·도시·항만 서비스
- 다분야 개발 방향
 - 해상운송 및 물류센터 구축
 - 기계제조 산업 (설비·구조물, 소재·부품, 기계·장비, 선박·운송수단 건조 및 수리)
 - 교육·훈련 및 직업교육
 - 바이오제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품
 - 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연구·개발·응용
 - 복합소재, 경량 건축자재 및 희소소재
 - 의료 서비스
 - 첨단기술 산업 지원 부품·소재
 - 종합 서비스·관광·레저 단지 개발 및 운영
 - 문화산업 (광고, 소프트웨어, 영화, 패션 등)
- 추진 일정
 - 1단계('24 ~ '26년): 도시계획 수립 및 주요 기반시설 투자 추진
 - 2단계('26 ~ '30년): 도시·산업·서비스 인프라 등 종합 기반시설 확충
 - 3단계('30년 이후): 경제·사회 인프라의 현대화 및 종합적 구축

2.2. 닌빈성 첨단기술단지

- 위치: 쩌트엉(Trần Thương), 년하(Nhân Hà), 남리(Nam Lý) 지역
- 면적: 663.19ha
- 총 투자액: 약 2억 2,900만 달러
- 우선 유치 분야: 인공지능(AI), 전자·반도체 기술, 바이오·의약 기술, 신소재 기술, 자동화 기술

닌빈성 인민의회는 2025년 12월 9일 제43/2025/NQ-HĐND호 결의를 제정하여, 닌빈성 내 과학기술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을 규정함. 해당 정책은 과학기술 및 혁신 창업 생태계와 관련된 기관, 기업, 생산·경영·서비스 시설, 협동조합, 공예마을, 협회 및 개인 등에 적용됨.

V. 유망 투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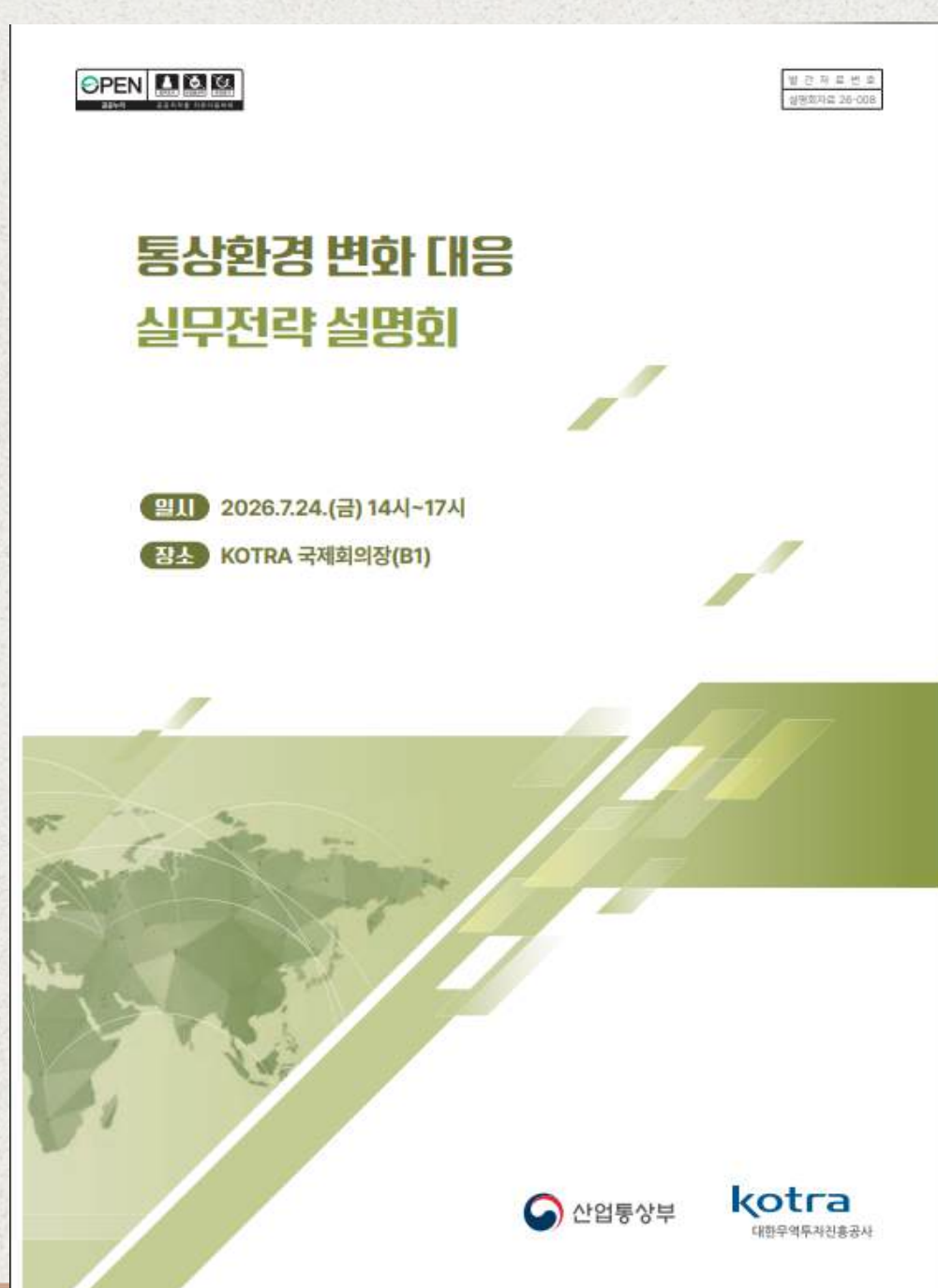
산업 분야	도시·주택 분야
- 중점 분야: 첨단기술, 친환경 기술, 고부가가치 및 저탄소 배출 프로젝트 - 개발 모델: 친환경·스마트·현대적인 산업-도시-서비스 연계 생태계 구축	- 개발 모델: 대중교통 연계형 개발(TOD)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스마트·지속가능 도시 개발 - 주요 분야: 고품질 주택, 사회주택 및 정주·편의시설을 갖춘 외국인·전문인력용 주택 개발
의료·교육 분야	상업·서비스·관광 분야
- 의료: 국제병원 및 전문·특화 의료시설 유치 - 교육: 고등교육, 고품질 직업교육 및 연구·혁신센터 육성	- 관광: 대규모·고급 관광·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 및 유산 보존, 지역 고유가치 활용, 녹색전환을 연계한 유산관광 육성 - 상업·서비스: 국제금융센터 및 현대적 물류 인프라 구축, 다층적 서비스 가치사슬 형성

VI. 투자 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 직위	연락처
닌빈성 투자·무역진흥센터	Trương Quốc Bảo / 센터장	- Tel: +84 824 773 388 - E-mail: tttxdttm@ninhbinh.gov.vn - Website: dongnam.nghean.gov.vn
닌빈성 경제구역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Nguyễn Hoàng Anh / 위원장	- Tel: +84 229 627 5678 - E-mail: bqlktcnnb@ninhbinh.gov.vn - Website: investment.nghean.gov.vn

RECOMMENDED REPORT OF THE MONTH

이달의 보고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 실무전략 설명회

CLICK HERE



2025 북한 대외무역 동향

CLICK HERE





Cafe Show Exhibition

8-10 OCT 2026

제2회 하노이 인터내셔널 카페쇼는 커피·차·음료부터 베이커리, F&B 전문 기계·장비까지 아우르는 국제 무역 전시회입니다. 급성장하는 베트남 F&B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LOCATION

**Vietnam Exposition Center
(VEC), Hanoi**

MORE INFORMATION

+84-28-3823-6050

▶ 개최기간

2026.10.08 -10.10

▶ 개최국가

베트남

▶ 개최규모

9500sqm(m²)

▶ 산업분야

식품&음료

info@cafeshow.com.vn

對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1988. 01. 01~2026. 07. 31 기준 누계		2026. 01. 01 ~ 07. 31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567	102,577.39	267	5,615.63	8,229.075
싱가포르	4,644	103,229.39	282	7,495.07	10,393.093
일 본	5,840	80,408.97	167	1,367.07	1,663.495
대 만	3,482	43,133.26	79	210.49	1,052.208
홍 콩	3,433	43,776.49	237	2,908.09	4,908.217
중 국	7,123	36,946.24	849	1,737.18	3,689.463
버진아일랜드(영)	950	25,426.43	13	146.84	253.513
태국	817	15,448.36	24	45.93	255.490
네덜란드	481	15,466.28	20	424.28	657.640
말레이시아	811	17,839.85	30	80.97	3,039.147
미국	1,587	12,504.98	86	161.14	437.618
기 타	7,778	66,481.23	375	853.28	3,478.931
전체 합계	47,513	563,238.87	2,429	21,045.97	38,057.89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산하 투자청(FIA: Foreign Investment Agency)

對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6. 07. 31기준 누계		2026. 01. 01 ~ 07. 31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9,574	342,015.67	578	11,575.28	18,684.38
2	부동산경영	1,359	92,557.71	47	2,105.16	5,654.18
3	전력,가스,용수 제조 공급	214	45,685.74	12	3,126.30	3,276.87
4	호텔,외식서비스	1,140	13,926.98	58	549.31	630.22
5	도소매; 유지보수	10,252	13,156.52	1,055	287.38	2,403.06
6	건설	1,928	11,061.45	55	62.46	166.65
7	물류운수	3,359	8,321.44	75	145.79	613.27
8	과학기술,전문활동	1,384	7,541.88	311	103.92	2,999.54
9	정보통신	5,417	6,646.58	124	3,026.90	3,180.59
10	채광	110	4,971.52	1	0.19	23.78
11	교육, 양성	543	3,946.29	23	19.62	15.33
12	농,임,수산	88	3,847.56	3	3.04	14.43
13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161	3,227.22	1	0.08	220.63
14	예술, 오락	162	1,902.03	7	2.51	7.10
15	의료, 사회복지	805	1,341.63	6	3.37	7.25
16	행정, 지원 서비스	735	1,173.00	65	33.99	60.68
17	기타 서비스	171	962.37	7	0.58	27.33
18	금융, 은행, 보험	105	942.64	1	0.07	72.62
19	가구내 고용활동	6	10.64	-	-	-
합계		47,513	563,238.87	2,429	21,045.97	38,057.89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산하 투자청(FIA: Foreign Investment Agency)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 분	2023	2024	2025	2026.7	2026(누계)
수 출	3,546	4,055	4,750	424.7(-16.4)	3,197.3(+21.7)
수 입	3,263	3,807	4,550	400.7(-25.0)	3,400.5(+34.8)
무역수지	280	247	200	24.0	-203.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3	2024	2025	2026.7	2026(누계)
전자제품 및 부품	57,336	72,584	107,748	13,982(-6.4)	85,171(+50.1)
기계장비 및 부품	43,128	52,191	59,046	6,902(+10.3)	40,151(+24.6)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2,379	53,891	56,709	6,801(+27.8)	38,499(+18.6)
섬유/직물제품	33,329	37,036	39,641	3,982(+7.7)	22,863(+1.1)
신발류	20,237	22,871	24,203	2,230(+3.1)	14,184(+0.7)
운송수단 및 부품	14,157	15,066	17,529	1,868(+5.3)	11,629(+16.3)
목재 및 목제품	13,467	16,282	17,204	1,609(+3.9)	10,209(+5.6)
수산물	8,971	10,040	11,285	1,101(+0.8)	6,858(+12.8)
철강으로 만든 제품	3,973	4,594	5,473	531(+7.4)	3,335(+1.9)
섬유원사(Yarn)	4,355	4,407	4,314	430(+5.5)	2,723(+11.1)
기 타	103,339	116,569	131,907	13,659	84,107
합 계	354,671	405,531	475,059	53,095	319,72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3	2024	2025	2026.7	2026(누계)
전자제품 및 부품	87,965	107,053	150,696	25,336(+17.2)	135,801(+65.9)
기계장비 및 부품	41,579	48,887	61,026	6,693(+1.9)	41,069(+22.7)
원단	13,016	14,905	15,198	1,273(-7.9)	8,945(+2.2)
플라스틱 원료	9,755	11,780	12,531	1,141(-3.2)	7,976(+8.7)
기타 비금속	7,626	9,554	11,373	1,350(+3.5)	8,632(+35.4)
각종 전화기 및 부품	8,749	10,403	11,258	968(-0.3)	5,825(-0.9)
각종 철강	10,425	12,583	11,212	1,071(+2.8)	6,684(+7.5)
화학제품	7,605	7,735	10,870	945(-0.2)	5,078(+29.3)
플라스틱 제품	7,508	8,853	9,781	1,086(+2.8)	5,866(+18.5)
화학물질	7,726	8,286	8,113	854(-9.6)	5,951(+28.8)
기 타	124,419	140,724	153,948	15,951	108,226
합 계	326,373	380,763	455,006	56,668	340,05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2	2023	2024	2025	2026.7	2026(누계)
1	미 국	109,388	97,020	119,501	153,178	18,395	104,693
2	중 국	57,702	61,207	61,211	70,453	7,665	45,643
3	한 국	24,293	23,498	25,619	28,943	3,199	19,059
4	일 본	24,232	23,314	24,608	26,766	2,858	17,628
5	홍 콩	10,936	9,631	12,423	17,557	1,897	12,795
6	네덜란드	10,430	10,241	12,993	13,478	1,580	9,417
7	인 도	7,961	8,498	9,064	10,351	1,024	6,980
8	독 일	8,968	7,400	7,934	9,533	1,166	6,867
9	태 국	7,476	7,192	7,782	8,796	889	6,524
10	영 국	6,065	6,345	7,543	8,392	879	5,386
	기 타	103,853	100,325	116,853	127,612	13,543	87,737
	합 계	371,304	354,671	405,531	475,059	53,095	319,72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2	2023	2024	2025	2026.6	2026(누계)
1	중 국	117,866	110,644	114,020	186,034	23,403	138,639
2	한 국	62,088	52,511	55,925	60,544	9,042	51,389
3	대 만	22,631	18,421	22,741	33,026	5,294	27,922
4	일 본	23,373	21,638	21,588	24,677	2,486	16,111
5	미 국	14,470	13,822	15,102	19,287	2,061	13,311
6	태 국	14,092	11,797	12,447	13,281	1,786	9,514
7	인도네시아	9,641	8,728	10,527	11,519	1,276	7,735
8	말레이시아	9,124	7,809	9,133	11,004	1,432	8,868
9	오스트레일리아	10,144	8,533	7,592	7,189	905	5,231
10	인 도	7,086	5,864	5,829	6,112	665	4,806
	기 타	68,386	66,606	105,859	82,333	8,318	56,527
	합 계	358,901	326,373	380,763	455,006	56,668	340,05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7	2026(누계)
수 출	60,972(+7.5)	53,479(-12.3)	58,321(+9.1)	62,775(+7.6)	9,933(+79.3)	54,367(+56.8)
수 입	26,726(+11.5)	25,941(-2.9)	28,440(+9.6)	31,774(+11.7)	3,505(+21.7)	21,476(+21.2)
무역수지	34,246	27,550	29,880	31,000	6,428	32,891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	2026.7	2026(누계)
반도체	16,240(+15.8)	12,730(-21.6)	18,039(+41.7)	24,645(+36.6)	6,071(+196.0)	30,432(+127.2)
평판디스플레이밋센서	12,527(+4.0)	12,350(-1.4)	11,227(-9.1)	10,325(-8.0)	1,038(+8.7)	6,192(+20.6)
무선통신기기	2,358(-29.2)	2,166(-8.1)	2,511(+15.9)	2,253(-10.3)	233(+13.2)	1,290(-5.0)
합성수지	2,580(+6.8)	1,996(-22.6)	2,333(+16.8)	2,173(-6.8)	209(+3.0)	1,230(-3.4)
석유제품	3,729(+222.0)	3,320(-11.0)	2,732(-17.7)	2,156(-21.1)	279(-11.0)	2,039(+47.5)
기구부품	2,194(-8.8)	1,862(-15.1)	1,773(-4.8)	1,814(+2.3)	164(+2.3)	1,026(+0.5)
철강판	1,069(-15.6)	887(-17.0)	994(+12.0)	1,127(+13.4)	64(-45.0)	506(-15.4)
플라스틱제품	1,064(-9.4)	1,021(-4.1)	1,056(+3.4)	1,081(+2.4)	105(+11.8)	651(+6.7)
자동차부품	1,166(+26.2)	759(-35.0)	855(+12.7)	789(-7.7)	71(+11.2)	402(-21.8)
계측제어분석기	792(-17.2)	799(+0.9)	662(-17.1)	671(+1.3)	63(+17.0)	476(+26.2)
기타	17,245	15,590	16,141	15,741	1,636	10,123
합계	60,964(+7.5)	53,480(-12.3)	58,323(+9.1)	62,775(+7.6)	9,933(+79.3)	54,367(+56.8)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	2026.7	2026(누계)
반도체	787(+5.0)	2,053(+160.9)	2,977(+45.0)	5,080(+70.7)	533(+30.2)	3,400(+35.9)
무선통신기기	5,987(+7.3)	4,544(-24.1)	4,679(+3.0)	4,911(+5.0)	891(+41.4)	4,426(+54.9)
의류	3,839(+13.1)	3,545(-7.6)	3,596(+1.4)	3,326(-7.5)	265(-1.5)	1,721(-6.8)
컴퓨터	1,948(+19.1)	2,076(+6.6)	2,384(+14.9)	2,988(+25.3)	353(+57.9)	2,374(+47.6)
산업용전기기기	916(+26.4)	1,340(+46.3)	1,643(+22.7)	2,029(+23.5)	209(+17.4)	1,368(+21.8)
신발	1,241(+0.0)	1,243(+0.1)	1,211(-2.6)	1,152(-4.8)	100(-7.2)	670(-5.6)
계측제어분석기	361(+9.0)	404(+12.0)	620(+53.6)	796(+28.3)	71(-2.6)	442(+4.5)
기구부품	654(+4.8)	571(-12.7)	655(-14.6)	763(+16.5)	68(+13.6)	469(+17.4)
평판디스플레이밋센서	782(-10.5)	658(-15.9)	598(-9.1)	683(+14.2)	62(-25.2)	475(+16.6)
목재류	917(+21.5)	698(-23.9)	661(-5.2)	579(-12.5)	38(-20.3)	287(-21.0)
기타	9,293	8,810	9,419	9,467	915	5,844
합계	26,725(+11.5)	25,942(-2.9)	28,443(+9.6)	31,774(+11.7)	3,505(+21.7)	21,476(+21.2)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2025~2026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5년(연간)	%	8.0	5.1	4.8	5.1	2.4	4.4
		2026년 1Q	%	7.8	5.6	6.3	5.4	2.8	0.9
		2026년 2Q	%	N/A	5.3	5.9	5.8	1.9	0.6
생산	산업생산(증가율 또는 지수)	2025년(연간)	-	9.2	160.3	N/A	136.9	97.2	1.2
		2026년 5월	-	8.8	N/A	115.1	139.4	100.7	13.1
		2026년 6월	-	12.7	N/A	107.1	147.1	95.0	14.6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5년(연간)	-	53.0	N/A	N/A	49.5	52.7	50.5
		2026년 5월	-	52.8	50.0	51.0	49.9	52.6	50.8
		2026년 6월	-	51.8	46.9	51.3	50.7	53.6	50.9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5년(연간)	-	N/A	N/A	100.9	136.0	N/A	N/A
		2026년 5월	-	N/A	120.9	102.6	N/A	N/A	N/A
		2026년 6월	-	N/A	117.8	102.7	N/A	N/A	N/A
	소매판매	2025년(연간)	-	9.2	N/A	100.0	187.2	29.08	1.2
		2026년 5월	-	11.8	△3.9	101.8	194.2	△14.5	4.0
		2026년 6월	-	14.8	△3.0	102.8	195.1	N/A	3.8
	소비자물가(증가율 또는 지수)	2025년(연간)	%	3.3	N/A	0.9	1.4	N/A	1.8
		2026년 5월	%	5.6	3.1	1.8	2.0	N/A	6.8
		2026년 6월	%	4.7	3.3	1.9	1.9	N/A	6.4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5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6년 5월	%	34.9	N/A	N/A	N/A	N/A	N/A
		2026년 6월	%	61.0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5년(연간)	%	N/A	N/A	2.0	3.0	0.82	4.2
		2026년 1Q	%	2.2	N/A	2.0	2.9	N/A	4.8
		2026년 2Q	%	N/A	N/A	2.0	3.0	N/A	4.9
무역	수출증가율	2025년(연간)	%	17.0	6.15	9.6	6.5	12.9	12.4
		2026년 5월	%	18.0	△5.7	36.1	45.3	10.5	8.6
		2026년 6월	%	28.1	8.8	48.9	45.4	20.8	24.1
	수입증가율	2025년(연간)	%	13.6	2.83	7.7	6.2	12.9	5.0
		2026년 5월	%	33.8	22.2	43.6	14.1	35.1	28.2
		2026년 6월	%	45.2	34.3	49.8	43.9	50.3	19.6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itics, Unemployment rate 전망치는 *표시



카카오톡에서 "KOTRA 세계이슈톡톡" 채널을 추가하고
세계 주요 통상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세요!

http://pf.kakao.com/_xbQCRn/friend

2026 호치민 Korea Festival 연계 쇼피 베트남 온라인 판촉전 참가기업 모집

'26.08.18 호치민무역관

KOTRA 호치민무역관은 우리 소비재 기업의 베트남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Shopee Vietnam과 연계한 「2026 Korea Festival 온라인 판촉전」을 개최합니다.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진출 및 판매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 호치민 Korea Festival 연계 쇼피(Shopee) 온라인 판촉전
- (기간/플랫폼) 2026.10.3.(토)-10.5(월) / 베트남 쇼피
- (주요내용) 베트남 쇼피 내 K-브랜드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여 국내 소비재 기업의 브랜드 노출 및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 참가요건 및 지원내용

- (모집대상) 베트남 온라인 시장 진출 및 판매 확대를 희망하는 국내 소비재 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베트남 쇼피에 입점되어 현재 판매 스토어를 운영 중인 기업
 - 쇼피 타 국가(예: 싱가포르) 입점 및 운영 중이며 2026년 9월 내 베트남 쇼피 물 오픈 및 상품 등록·판매가 가능한 기업
- (지원사항) 메인 배너 노출 및 플래쉬 세일 등 프로모션 지원
 - ① 쇼피 메인에 K-Festival 전용 배너, 팝업 등 행사 광고 노출
 - ② Flash Sale(참가기업 당 최소 1회) 및 할인바우처(쇼피 지정) 지원
 - ③ 푸시 알림, CRM 등 K-Festival 행사 홍보 및 참가기업 제품의

CLICK HERE 

kotra

— VIETNAM BUSINESS NEWS —



KOTRA 하노이 무역관

20th Floor, Charmvit Building
117 Tran Duy Hung, Cau Giay, Hanoi, Vietnam
Tel: +84-24-3946-0511
Email: hanjisoo@kotra.or.kr
Web: www.kotra.or.kr